하나증권 리서치센터 | 2026년 02월 04일

HANA Global Weekly

하나증권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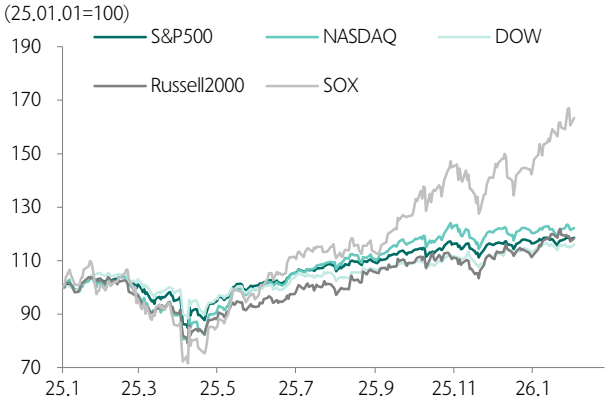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증시 동향

- 미국 증시는 강보합 마감. 1월 FOMC에서 연준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에서 CAPEX 지출 확대와 클라우드 성장세 둔화를 밝히며 약세. 소프트웨어 업종은 투자심리 위축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
-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가 지명. 시장에서는 매파적 행보 우려하면서 금과 은 가격이 폭락했고 주식시장 변동성도 확대. 다만, 우려가 진정되었고, 기술주 중심 실적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지수는 강세 전환

종가 기준일: 2026.02.02

미국 주요 지표 그래프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종가 (pt)	1D (%)	1W (%)	1M (%)	YTD (%)
지수	S&P500	6,976.4	0.5	0.4	1.7	1.9
	NASDAQ	23,592.1	0.6	(0.0)	1.5	1.5
	DOW	49,407.7	1.1	(0.0)	2.1	2.8
	Russell2000	2,640.3	1.0	(0.7)	5.3	6.4
	SOX	8,134.5	1.7	2.6	10.4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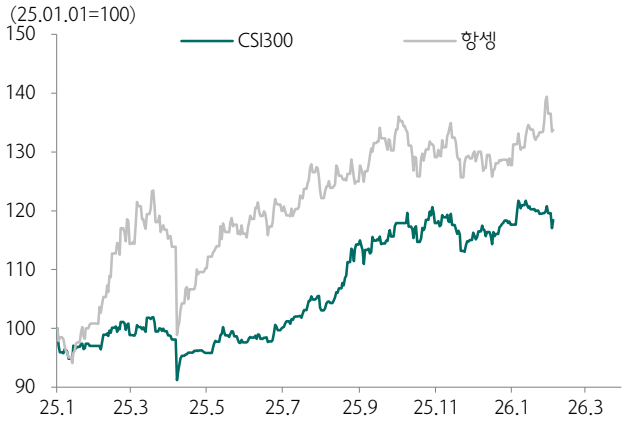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중국 증시 동향

- 중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외부 유동성의 지속적인 감소세는 잠시 주춤하며 안정을 찾았으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 내부적으로는 춘절 긴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점차 평온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
- 현재 A주 시장의 거래대금과 신용융자 잔고는 고점 대비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연휴를 앞두고 탈레버리지(De-leveraging) 현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며 거래 지표들이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큼
- 전반적인 시장 반등 부위기 속에서 미래 산업 및 하드웨어 기술주가 강세 시현

종가 기준일 : 2026.02.03

중국 주요 지표 그래프



자료: Wind, 하나증권

		종가 (pt)	1D (%)	1W (%)	1M (%)	YTD (%)
지수	CSI300	4,660.1	1.2	(1.0)	0.7	18.4
	항셍	26,834.8	0.2	(1.1)	1.9	33.8

자료: Wind, 하나증권

다음주 주요 이벤트 및 관전 포인트

	날짜	시간	중요도	관전 포인트
일본 조기 총선	2/8	15:00	★★	재정 정책, 안보, 물가 등이 이번 총선 핵심 쟁점
세미콘코리아 2026	2/11	09:00	★★	국내 최대 반도체 전시회. AI 서밋도 개최
미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2/11	22:30	★★★	12월 CPI 전년 대비 2.7% 상승하며 예상치 부합
2026 뮌헨 안보회의(MSC 2026)	2/13~15	21:00	★★	안보, 외교, 기술, 기후 변화 등 국제 정세 논의

자료: 블룸버그, 하나증권

투자 유망 ETF

QDF (FlexShares Quality Dividend Index Fund)	XLE (State Street Energy Select Sector SPDR ETF)	SMH (VanEck Semiconductor ETF)	MADE (iShares US Manufacturing ETF)
PAVE (Global X US Infrastructure Development ETF)	SHLD (Global X Defense Tech ETF)	QGRO (American Century US Quality Growth)	VCIT (Vanguard Intermediate-Term Corporate Bond ETF)

투자 유망 종목

엔비디아 (NVDA.US)	알파벳 (GOOGL.US)	일라이 릴리 (LLY.US)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U.US)	팔란티어 (PLTR.US)
캐터필러 (CAT.US)	RTX (RTX.US)	블룸 에너지 (BE.US)	바이두 (9888.HK)	동방전기 (600875.CH)

실적 발표

기업명	티커	발표 날짜	컨센
일라이릴리	LLY	2월 4일 장전	FY25 4분기 매출 179.3억, EPS 6.68 달러
알파벳	GOOGL	2월 4일 장후	FY25 4분기 매출 809.5억, EPS 2.62 달러
아마존	AMZN	2월 5일 장후	FY26 1분기 매출 212.4억, EPS 1.97 달러

금주의 리포트

기업/산업명	제목
메타(META.US)	AI 광고 수익 효과 뚜렷, 마진 압박 우려 상존
마이크로소프트(MSFT.US)	스토리는 변함 없다. 시간이 좀더 걸리는 이유
RTX Corp.(RTX.US)	모든 게 좋았다. 기분 좋게 2026년 시작
미국 이슈 코멘트	올해 미국인들 연말 정산 환급 많이 받는다(OBBBA)
GE 버노바(GEV.US)	소형터빈이 위협할 수 없는 안정성
미국 태양광	테슬라 태양광모듈 사업 진출과 퍼스트솔라 급락 코멘트
사원전기(002028.CH)	글로벌 전력망 업그레이드 수혜 가능한 변압기/GIS 제조사
알리바바(BABA.US)	AI만 잘해도 주가는 갈 수 있다

글로벌 섹터별 트렌드_선진국

(단위 : %, 밸류에이션 지표 제외)

	종가추이					EPS					PER(12M fwd)							PBR(12M fwd)							Comment
	1W (%)	1M (%)	3M (%)	1Y (%)	YTD (%)	1W (%)	1M (%)	3M (%)	1Y (%)	YTD (%)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1년간)	최소 (1년간)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1년간)	최소 (1년간)	
세계	-0.7	2.4	3.6	21.5	2.9	0.1	0.2	0.3	0.8	0.2	18.8	19.1	19.0	19.5	18.4	19.7	14.9	3.2	3.3	3.2	3.2	3.0	3.3	2.2	
에너지	0.7	7.7	11.4	18.1	9.5	0.0	-0.1	-0.2	-0.9	-0.2	16.3	15.9	14.5	13.9	11.8	16.3	7.8	1.8	1.7	1.7	1.7	1.5	1.8	1.3	
소재	-4.0	7.7	18.2	35.1	8.5	0.0	0.5	0.8	1.3	0.5	16.6	17.1	16.5	16.0	15.6	17.4	12.4	2.3	2.3	2.1	2.0	1.7	2.4	1.6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정보기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금융
산업재	0.1	6.0	7.9	29.9	7.6	0.0	0.1	0.1	0.4	0.1	23.1	23.2	22.2	22.1	19.9	23.5	15.8	3.9	4.0	3.8	3.7	3.3	4.0	2.5	
자유소비재	-1.4	1.1	-1.8	6.4	0.8	0.0	0.1	0.2	0.2	0.1	21.4	21.8	21.5	22.8	21.3	22.9	16.2	3.5	3.6	3.6	3.8	3.7	3.8	2.8	
필수소비재	1.6	6.1	8.4	10.7	6.0	-0.0	0.0	0.1	0.3	0.0	19.8	19.6	19.0	18.8	19.0	20.3	17.1	4.2	4.2	4.0	4.0	4.0	4.3	3.5	
건강관리	-0.6	1.2	8.3	8.4	1.5	0.0	0.0	0.0	0.2	0.0	18.5	18.7	18.4	17.2	17.7	20.2	15.7	4.0	4.1	4.0	3.8	3.9	4.4	3.5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필수소비재, 건강관리, 유틸리티
금융	0.7	0.8	7.5	21.7	1.4	0.0	0.1	0.3	1.2	0.1	13.2	13.3	13.4	12.9	13.1	13.7	9.2	1.7	1.7	1.8	1.7	1.6	1.8	1.1	
정보기술	-2.6	0.2	-4.1	30.6	0.6	0.1	0.4	0.8	1.5	0.4	22.3	23.6	24.3	28.0	25.7	29.6	20.0	7.4	7.7	7.8	8.4	7.0	8.5	5.0	
커뮤니케이션	2.0	4.4	7.0	27.4	4.5	0.0	0.1	0.2	0.8	0.1	21.0	20.7	20.6	20.5	19.9	21.2	15.0	3.9	3.9	3.8	3.8	3.5	4.0	2.1	
유틸리티	-1.3	1.3	1.3	21.4	2.6	0.0	0.1	0.2	0.7	0.1	16.2	16.2	16.0	16.4	14.8	16.6	12.5	1.8	1.8	1.8	1.8	1.7	1.9	1.4	
미국	0.1	1.4	1.7	16.5	1.7	0.0	0.1	0.3	0.6	0.1	21.7	22.0	21.9	22.7	21.8	22.9	17.0	4.6	4.6	4.6	4.7	4.4	4.7	3.3	
에너지	1.6	9.2	13.9	16.9	11.4	0.0	-0.2	-0.2	-0.7	-0.2	19.3	18.9	16.8	16.0	14.2	19.3	9.2	2.2	2.2	2.0	2.0	2.0	2.2	1.7	
소재	-3.5	7.7	19.4	28.1	9.0	0.0	0.2	0.5	1.2	0.2	19.2	20.1	18.6	17.9	19.6	21.4	15.4	2.9	3.0	2.7	2.5	2.4	3.0	2.0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정보기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소재
산업재	1.6	5.8	7.8	20.9	7.8	-0.0	0.0	0.1	0.3	0.0	26.0	25.9	25.0	24.9	23.3	26.3	17.7	6.2	6.3	6.1	6.0	5.6	6.4	4.1	
자유소비재	-0.2	3.2	-1.0	5.3	2.1	0.0	0.1	0.2	0.4	0.1	26.4	26.9	26.2	28.0	28.5	30.1	21.0	7.1	7.3	7.1	7.8	8.5	8.8	6.2	
필수소비재	2.3	9.0	12.0	8.5	8.9	0.0	0.0	0.0	0.0	0.0	22.3	22.3	20.9	20.5	21.1	22.6	17.5	6.2	6.2	5.8	5.7	5.7	6.2	4.7	
건강관리	-1.6	-0.4	6.8	5.3	0.0	0.0	-0.0	-0.0	-0.0	-0.0	18.9	19.0	19.0	17.6	18.0	20.2	15.8	4.5	4.6	4.6	4.3	4.5	4.9	3.8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산업재, 필수소비재, 건강관리
금융	0.9	-1.8	4.3	8.8	-1.4	0.0	0.1	0.3	0.8	0.1	15.4	15.4	16.1	15.5	16.4	17.0	10.6	2.2	2.2	2.2	2.2	2.2	2.3	1.3	
정보기술	-1.0	-1.9	-7.1	25.7	-1.8	0.0	0.1	0.5	1.2	0.2	24.7	25.7	26.1	30.7	27.8	32.3	21.5	9.6	10.0	10.2	11.3	9.5	11.5	7.0	
커뮤니케이션	2.9	6.0	11.3	28.1	5.7	0.0	0.1	0.2	0.7	0.1	22.2	21.8	21.5	20.9	20.8	22.3	14.4	4.7	4.7	4.5	4.5	4.4	4.8	2.4	
유틸리티	-0.8	-1.4	-4.1	9.3	-0.3	0.0	0.1	0.1	0.4	0.1	18.3	18.4	18.4	19.1	17.6	20.0	14.1	2.1	2.1	2.1	2.2	2.0	2.3	1.5	
일본	-0.6	3.9	5.5	29.9	3.9	0.0	0.1	0.3	0.7	0.1	17.5	17.6	17.1	17.5	15.2	18.4	12.3	1.7	1.7	1.7	1.7	1.4	1.8	1.1	
에너지	2.1	10.6	23.7	62.9	10.6	-0.0	0.0	1.4	1.5	0.0	11.8	11.5	10.7	11.4	8.8	12.5	6.2	0.9	0.9	0.8	0.7	0.6	0.9	0.4	
소재	-3.4	5.8	12.5	21.0	5.8	-0.4	-0.2	-0.3	-0.1	-0.2	16.6	16.2	15.1	14.1	13.6	17.1	9.9	1.2	1.2	1.1	1.1	1.0	1.4	0.8	
산업재	0.2	6.9	10.3	43.2	6.9	0.0	0.1	0.1	0.3	0.1	19.8	19.8	18.9	18.4	14.8	20.8	11.1	2.0	2.0	1.9	1.8	1.5	2.1	1.2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정보기술, 산업재, 금융
자유소비재	0.2	-1.5	-0.9	15.5	-1.5	0.0	0.0	0.5	0.0	0.0	16.0	16.0	16.4	17.7	14.0	18.1	10.1	1.4	1.4	1.4	1.4	1.2	1.5	1.0	
필수소비재	0.8	-1.1	-0.8	13.5	-1.1	0.0	-0.0	0.1	0.3	-0.0	21.0	20.9	21.0	21.6	19.6	22.9	18.2	2.1	2.1	2.1	2.0	1.7	2.2	1.6	
건강관리	0.7	2.2	6.5	9.3	2.2	0.0	0.2	0.2	0.6	0.2	17.8	17.7	17.9	17.3	18.2	23.4	15.2	2.3	2.3	2.3	2.2	2.2	2.6	1.8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소재, 유틸리티, 에너지
금융	-0.7	7.0	19.4	37.3	7.0	0.0	0.1	0.4	2.0	0.1	12.4	12.5	11.7	10.9	12.0	13.5	8.5	1.2	1.2	1.2	1.1	1.0	1.3	0.6	
정보기술	-3.5	7.9	4.3	40.2	7.9	0.2	0.2	0.5	0.5	0.2	25.9	28.0	25.6	28.4	21.3	28.4	16.5	3.4	3.6	3.2	3.4	2.4	3.6	1.8	
커뮤니케이션	-0.8	-4.4	-21.3	17.0	-4.4	-0.0	0.3	0.1	0.8	0.3	21.6	21.8	24.3	28.3	22.2	28.3	13.2	2.1	2.1	2.2	3.4	2.2	3.4	1.5	
유틸리티	2.1	3.1	13.0	55.2	3.1	-0.0	-0.1	0.7	-0.1	-0.1	10.9	10.7	10.4	10.5	6.9	12.8	5.0	0.9	0.9	0.9	0.8	0.5	0.9	0.5	
유럽	1.3	3.5	7.6	14.9	4.2	0.0	0.1	0.1	0.2	0.1	15.7	15.8	15.5	15.0	14.2	15.9	11.6	2.2	2.2	2.2	2.1	2.0	2.2	1.6	
에너지	3.4	4.7	4.5	7.8	6.0	0.1	-0.2	-0.4	-2.5	-0.2	12.0	11.7	11.1	10.9	8.5	12.0	5.9	1.3	1.2	1.4	1.4	1.1	1.6	1.0	
소재	-0.4	6.7	13.7	13.2	6.6	0.0	0.2	0.6	-0.1	0.2	16.9	17.2	16.7	16.6	14.8	17.4	11.6	1.9	1.9	1.8	1.7	1.6	1.9	1.4	
산업재	1.1	5.3	6.4	24.3	6.6	0.0	0.1	0.1	0.3	0.1	22.4	22.5	21.7	21.7	19.5	22.9	15.1	3.9	4.0	3.8	3.8	3.4	4.0	2.6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에너지, 금융, 산업재
자유소비재	-1.5	-7.6	-5.3	-13.2	-7.4	0.0	0.0	0.3	-1.0	0.0	15.1	15.4	16.5	16.7	15.2	17.2	10.9	1.6	1.7	1.8	1.7	1.8	2.0	1.5	
필수소비재	3.0	1.8	2.4	3.1	1.5	0.0	-0.0	0.0	-0.0	0.0	15.7	15.4	15.6	15.6	15.3	18.8	14.6	2.9	2.8	2.8	2.8	2.8	3.2	2.6	
건강관리	-0.1	5.2	12.5	4.1	5.0	0.0	0.1	0.0	0.0	0.1	16.5	16.9	16.1	14.9	16.2	18.9	13.1	3.4	3.5	3.3	3.1	3.4	4.0	2.8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유틸리티, 필수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금융	3.0	2.9	12.8	36.4	3.6	0.0	0.1	0.2	1.2	0.1	11.5	11.5	11.5	10.6	9.9	11.6	7.7	1.5	1.5	1.5	1.4	1.2	1.5	0.8	
정보기술	-1.4	8.8	7.3	14.2	11.5	0.0	0.1	0.1	0.2	0.1	30.7	32.1	29.6	29.5	28.7	32.1	18.9	5.5	5.8	5.3	5.4	5.0	5.8	3.5	
커뮤니케이션	2.9	0.8	-1.5	-4.6	0.6	0.0	0.0	0.2	0.2	0.0	15.9	15.7	16.0	16.9	17.5	19.7	12.6	2.0	2.0	2.0	2.0	2.0	2.2	1.2	
유틸리티	2.0	5.5	10.2	36.4	7.2	0.0	0.1	0.2	0.7	0.1	14.9	14.8	14.3	14.0	12.1	14.9	11.1	1.8	1.7	1.7	1.6	1.4	1.8	1.4	

글로벌 섹터별 트렌드_신흥국

(단위 : %, 밸류에이션 지표 제외)

	종가추이					EPS					PER(12M fwd)							PBR(12M fwd)							Comment
	1W (%)	1M (%)	3M (%)	1Y (%)	YTD (%)	1W (%)	1M (%)	3M (%)	1Y (%)	YTD (%)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1년간)	최소 (1년간)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1년간)	최소 (1년간)	
신흥국	-2.3	4.5	5.9	39.1	6.4	0.3	0.8	1.0	1.8	0.8	13.0	13.4	13.4	13.8	11.8	14.0	10.9	2.0	2.0	1.9	1.9	1.5	2.1	1.3	
에너지	0.1	2.6	3.8	15.0	3.4	-0.0	0.0	-0.4	-1.6	-0.0	11.7	11.4	11.2	10.6	8.4	11.7	6.2	1.3	1.3	1.3	1.2	1.1	1.3	0.6	
소재	-7.5	7.5	18.8	66.8	8.4	0.0	1.2	1.5	2.6	1.2	13.3	13.9	13.9	13.2	11.5	14.5	9.8	2.0	2.0	1.8	1.7	1.2	2.2	1.0	
산업재	-1.3	6.5	4.0	46.6	7.5	0.2	0.3	0.4	0.6	0.3	16.9	17.1	16.3	16.9	12.3	17.4	10.7	2.2	2.2	2.1	2.1	1.5	2.3	0.7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정보기술, 산업재, 소재
자유소비재	-2.8	-0.1	-4.0	17.9	2.2	0.0	0.1	0.0	-0.3	0.1	14.9	15.0	14.7	15.2	11.9	16.1	10.8	2.0	2.0	2.0	2.1	1.8	2.2	1.5	
필수소비재	-0.7	0.8	-0.8	5.1	0.7	-0.2	0.2	0.2	0.3	0.2	18.1	17.6	18.6	18.8	18.3	21.1	17.6	3.1	3.1	3.2	3.1	2.9	3.2	2.6	
건강관리	-3.4	-0.7	-4.4	14.3	1.0	0.0	0.1	0.0	-0.1	0.1	27.5	28.0	27.8	28.2	22.9	30.4	22.7	3.6	3.7	3.7	3.6	2.8	3.9	2.5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필수소비재, 에너지, 자유소비재
금융	-0.5	3.7	7.0	28.1	4.5	0.0	0.2	0.4	1.3	0.2	9.7	9.7	9.5	9.3	8.6	9.8	7.0	1.2	1.2	1.2	1.1	1.0	1.2	0.9	
정보기술	-3.1	9.4	13.0	73.8	12.5	0.8	1.9	2.6	4.2	2.0	13.1	14.4	15.2	16.6	15.5	19.1	11.8	3.7	3.8	3.5	3.4	2.7	3.9	1.9	
커뮤니케이션	-2.1	-1.9	-3.1	35.7	1.2	0.0	0.1	0.3	1.2	0.1	16.8	16.9	17.1	18.1	15.2	20.3	13.8	2.6	2.6	2.7	2.9	2.0	3.0	1.6	
유틸리티	-0.5	3.0	1.4	18.3	4.2	0.0	0.1	0.5	0.9	0.1	11.5	11.6	11.2	12.0	10.8	14.1	9.8	1.3	1.3	1.3	1.3	1.2	1.4	1.0	
중국	-2.4	-0.2	-1.9	30.7	2.5	0.0	0.1	0.3	0.5	0.2	12.1	12.5	12.4	12.8	9.9	13.6	8.0	1.4	1.5	1.5	1.5	1.2	1.6	0.9	
에너지	-0.3	6.6	7.1	28.7	8.1	0.0	0.1	0.4	-1.2	0.1	11.1	10.8	10.2	10.4	7.4	11.3	5.4	1.0	1.0	0.9	0.9	0.8	1.0	0.7	
소재	-8.8	7.4	23.3	125.2	10.0	0.1	0.6	0.9	2.3	0.6	15.4	16.0	14.7	13.4	9.4	16.8	8.1	2.4	2.5	2.2	1.9	1.1	2.6	0.9	
산업재	-1.7	0.8	1.9	23.3	1.9	0.0	0.2	0.1	-1.1	0.2	11.9	12.0	11.9	11.6	8.4	12.1	6.8	1.2	1.2	1.2	1.1	0.8	1.2	0.7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소재, 자유소비재, 금융
자유소비재	-3.2	-0.2	-6.1	17.5	3.0	0.1	0.1	-0.1	-0.6	0.1	15.4	15.6	15.2	15.8	11.8	19.4	10.0	2.1	2.1	2.1	2.3	1.9	2.5	1.5	
필수소비재	1.3	1.6	-2.7	11.1	2.8	0.0	0.1	0.2	0.1	0.1	16.4	16.2	16.3	17.4	15.0	22.1	12.8	2.8	2.8	2.8	3.0	2.5	4.2	2.3	
건강관리	-4.7	1.9	-5.4	51.6	3.9	0.0	0.1	0.0	0.6	0.1	27.2	27.6	26.7	27.7	20.6	32.2	19.0	3.3	3.3	3.1	3.2	2.0	3.6	1.7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유틸리티, 건강관리, 정보기술
금융	0.4	0.4	3.5	29.2	2.0	0.0	0.2	0.7	1.9	0.2	6.2	6.1	6.1	6.1	5.3	6.5	3.6	0.6	0.6	0.6	0.6	0.5	0.6	0.4	
정보기술	-4.1	-3.7	-8.6	17.8	-1.6	0.0	0.1	0.1	0.8	0.1	23.1	23.5	23.9	25.2	23.3	30.3	12.6	3.1	3.1	3.2	3.4	2.8	4.0	1.3	
커뮤니케이션	-2.1	-3.3	-4.0	46.1	0.9	0.0	0.1	0.4	1.2	0.1	16.4	16.5	17.0	18.0	13.6	22.1	11.3	2.6	2.6	2.7	3.0	1.8	3.2	1.3	
유틸리티	-1.2	-0.1	-3.3	8.6	0.4	-0.0	-0.2	-0.0	-1.0	-0.2	10.0	9.9	9.7	10.1	8.2	10.4	6.5	1.0	1.0	1.0	1.0	0.9	1.1	0.7	
인도	0.0	-5.0	-2.7	7.4	-3.8	-0.0	0.1	0.1	0.4	0.1	21.0	20.9	22.6	22.1	21.5	24.5	18.4	3.1	3.2	3.4	3.2	3.4	4.0	2.8	
에너지	1.4	-9.4	-4.3	13.7	-8.1	-0.0	-0.0	0.2	0.6	0.0	14.2	13.9	15.6	15.2	13.6	24.8	12.6	1.6	1.6	1.8	1.7	1.5	2.9	1.4	
소재	-2.1	-0.9	2.0	21.8	0.6	0.1	0.3	0.5	1.3	0.4	18.7	19.4	20.2	20.2	20.5	22.6	15.4	2.8	2.9	2.9	2.8	2.7	3.1	2.1	
산업재	3.9	-3.8	-2.2	19.6	-1.9	-0.0	0.0	0.1	0.4	0.0	32.6	31.3	34.1	34.1	31.0	42.0	25.4	6.5	6.2	6.7	6.7	6.4	8.8	3.9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소재, 자유소비재, 금융
자유소비재	0.5	-8.6	-6.3	3.0	-7.2	0.1	0.0	0.3	0.6	0.1	26.8	27.2	29.7	30.8	30.9	35.0	23.7	4.9	4.9	5.4	5.4	5.7	7.0	3.7	
필수소비재	-1.2	-2.7	-4.9	-5.1	-4.5	-0.7	0.7	0.5	1.1	0.7	32.7	26.7	43.3	40.5	52.6	56.6	26.7	9.6	9.8	9.9	10.1	9.9	12.1	8.2	
건강관리	-0.9	-5.8	-7.0	-3.3	-5.1	0.0	-0.0	-0.0	-1.1	-0.0	29.2	29.6	30.8	31.0	22.9	34.2	22.2	4.3	4.4	4.6	4.6	4.9	5.5	3.3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필수소비재, 유틸리티, 에너지
금융	-0.7	-4.5	-2.4	14.8	-3.5	0.0	0.1	-0.1	0.1	0.1	17.2	17.4	18.3	17.5	15.4	21.8	14.7	2.3	2.3	2.5	2.3	2.3	3.3	2.2	
정보기술	-1.6	-0.9	7.0	-12.5	0.3	0.0	0.1	0.2	0.4	0.1	22.6	23.0	23.2	22.0	28.7	31.6	19.7	6.6	6.7	6.3	5.9	8.4	9.7	5.8	
커뮤니케이션	0.1	-6.8	-3.9	15.1	-5.8	0.0	0.1	0.0	1.4	0.1	37.4	37.5	40.9	39.0	69.2	82.9	27.6	9.5	9.6	10.4	10.4	13.7	20.5	3.8	
유틸리티	2.9	-3.9	-5.4	3.3	0.4	-0.0	0.0	0.0	0.4	0.0	15.2	14.7	15.8	16.1	15.7	21.9	11.4	2.0	1.9	2.0	2.1	2.2	3.1	1.5	
브라질	1.9	16.6	20.1	46.1	17.1	0.1	0.4	0.1	0.3	0.5	10.8	11.0	9.8	9.1	7.7	11.1	6.4	1.7	1.7	1.6	1.5	1.2	1.7	0.7	
에너지	1.8	25.9	28.1	12.9	26.4	0.1	-0.1	-3.2	-6.3	-0.1	8.1	7.8	6.2	4.9	4.7	8.1	3.3	1.0	1.1	0.9	0.7	0.8	4.6	0.2	
소재	-1.7	17.2	27.1	51.9	18.9	0.0	1.0	0.7	0.6	1.0	8.4	8.6	7.8	7.0	5.9	8.8	5.0	1.3	1.3	1.2	1.1	0.9	1.7	0.8	
산업재	-2.6	12.8	18.1	34.5	13.3	0.0	0.3	0.4	1.0	0.4	19.7	20.4	18.8	18.1	18.1	26.1	15.4	2.4	2.5	2.8	2.5	2.2	3.7	1.4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자유소비재, 유틸리티, 에너지
자유소비재	2.3	21.9	31.2	103.7	24.3	0.2	0.7	1.0	1.6	0.7	12.0	12.3	11.0	10.6	7.5	17.0	6.6	1.6	1.6	1.3	1.2	0.8	1.9	0.8	
필수소비재	0.1	11.0	20.2	31.9	10.6	0.0	0.4	0.0	0.3	0.4	15.1	15.3	14.6	12.7	12.2	18.5	10.7	2.5	2.6	2.6	2.5	1.9	2.8	1.7	
건강관리	-0.2	12.0	3.7	69.6	12.5	0.1	0.2	0.4	1.1	0.3	17.0	17.8	16.2	18.2	12.7	28.1	10.8	3.6	3.6	3.1	3.2	0.8	3.7	0.7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정보기술, 금융, 산업재
금융	-0.7	16.5	18.1	56.3	17.1	0.0	0.4	0.6	1.7	0.5	10.8	11.0	9.8	9.9	8.6	11.2	6.2	2.2	2.3	2.0	2.0	1.7	2.3	1.1	
정보기술	-3.9	13.7	6.0	45.6	11.5	-0.0	0.2	0.2	1.2	0.2	24.0	25.1	22.4	24.0	23.8	26.6	18.7	4.5	4.7	4.1	4.5	4.1	5.0	2.3	
커뮤니케이션	-0.4	18.0	11.8	68.0	18.8	0.1	0.5	0.6	2.1	0.5	13.8	14.0	12.6	13.4	11.6	15.4	10.4	2.1	2.1	1.8	1.9	1.4	2.2	1.0	
유틸리티	-0.4	11.5	15.7	70.4	11.3	0.2	0.6	1.1	2.3	0.6	12.8	13.3	12.5	13.0	10.7	14.5	8.6	1.4	1.4	1.3	1.5	1.1	1.5	0.9	

글로벌 스타일별 추이

(단위 : %, 밸류에이션 지표 제외)

	종가추이					EPS					PER(12M fwd)							PBR(12M fwd)							Comment
	1W (%)	1M (%)	3M (%)	1Y (%)	YTD (%)	1W (%)	1M (%)	3M (%)	1Y (%)	YTD (%)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3년간)	최소 (3년간)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3년간)	최소 (3년간)	
세계	-0.5	2.1	3.3	19.5	2.4	0.0	0.1	0.3	0.7	0.1	20.0	20.3	20.0	20.5	19.5	20.7	15.5	3.5	3.5	3.5	3.5	3.3	3.5	2.5	
대형주	-0.3	2.0	3.0	20.2	2.3	0.0	0.1	0.3	0.7	0.1	20.5	20.8	20.6	21.2	20.0	21.4	15.7	3.8	3.9	3.8	3.9	3.6	3.9	2.6	• EPS 증가율 상위 스타일 →소형주
중형주	-1.4	2.6	4.8	15.7	3.3	0.0	0.1	0.2	0.7	0.1	17.4	17.8	17.3	17.2	17.0	18.0	13.9	2.3	2.4	2.3	2.2	2.1	2.4	1.7	
소형주	-1.5	4.9	8.7	22.5	5.9	0.1	0.2	0.4	0.9	0.2	17.2	17.8	17.1	17.2	16.6	17.9	13.2	1.7	1.8	1.7	1.7	1.5	1.8	1.1	
성장	-2.0	-0.2	-2.1	18.7	-0.2	0.0	0.1	0.2	0.7	0.1	26.5	27.3	27.3	28.3	27.6	28.8	21.8	6.7	6.9	6.9	7.2	6.9	7.2	4.8	• EPS 증가율 하위 스타일 →가치
가치	1.0	4.4	9.1	19.8	5.0	0.0	0.1	0.2	0.5	0.1	16.3	16.3	15.9	15.4	14.8	16.3	11.7	2.4	2.4	2.4	2.2	2.1	2.4	1.6	
미국	0.1	1.4	1.7	16.5	1.7	0.0	0.1	0.3	0.6	0.1	21.7	22.0	21.9	22.7	21.8	22.9	17.0	4.6	4.6	4.6	4.7	4.4	4.7	3.3	
대형주	-0.2	1.4	1.4	17.7	1.6	0.0	0.1	0.3	0.7	0.1	22.2	22.5	22.4	23.3	22.2	23.6	17.3	5.0	5.0	5.0	5.2	4.8	5.2	3.5	• EPS 증가율 상위 스타일 →소형주
중형주	-1.3	1.7	3.3	8.3	2.6	0.0	0.1	0.2	0.5	0.1	18.8	19.2	18.8	18.7	19.0	20.1	14.9	2.9	3.0	2.9	2.8	2.8	3.0	2.2	
소형주	-1.0	5.2	8.9	17.5	6.5	0.1	0.2	0.5	0.9	0.2	18.5	19.2	18.4	18.8	19.0	21.1	14.8	2.0	2.1	2.0	2.0	1.8	2.1	1.4	• EPS 증가율 하위 스타일 →가치
성장	-2.0	-1.4	-4.1	18.3	-1.6	0.0	0.1	0.1	0.7	0.1	28.3	29.3	29.6	31.0	29.8	31.5	23.0	9.5	9.8	10.0	10.1	9.4	10.4	6.0	
가치	1.4	4.3	8.1	13.5	4.9	0.0	0.1	0.1	0.3	0.1	17.8	17.7	17.4	16.9	16.8	17.9	13.1	3.1	3.1	3.0	2.8	2.7	3.1	2.1	
일본	-0.6	3.9	5.5	29.9	3.9	0.0	0.1	0.3	0.7	0.1	17.5	17.6	17.1	17.5	15.2	18.4	12.3	1.7	1.7	1.7	1.7	1.4	1.8	1.1	
대형주	-0.5	3.9	4.7	30.4	3.9	0.0	0.1	0.3	0.6	0.1	18.1	18.3	17.8	18.1	15.7	19.2	12.3	1.8	1.8	1.8	1.9	1.5	2.0	1.2	• EPS 증가율 상위 스타일 →소형주
중형주	-0.8	4.2	7.8	29.0	4.2	-0.0	0.1	0.4	0.6	0.1	16.0	16.1	15.5	16.0	13.8	16.5	11.4	1.5	1.5	1.4	1.3	1.1	1.5	1.0	
소형주	-3.1	3.9	7.1	31.0	4.0	0.1	0.3	0.3	0.9	0.3	15.2	15.8	15.2	14.9	13.4	15.8	11.6	1.3	1.3	1.2	1.2	1.1	1.3	0.9	• EPS 증가율 하위 스타일 →중형주
성장	-1.3	3.0	-0.4	22.7	3.0	0.1	0.2	-0.0	0.3	0.2	24.2	24.9	24.4	24.3	21.1	26.1	16.4	2.8	2.9	2.8	3.1	2.5	3.1	1.9	
가치	0.1	4.8	11.5	37.0	4.8	-0.0	0.1	0.5	1.1	0.1	13.9	13.9	13.4	13.5	12.0	14.5	9.6	1.2	1.2	1.2	1.1	1.0	1.3	0.8	
유럽	1.3	3.5	7.6	14.9	4.2	0.0	0.1	0.1	0.2	0.1	15.7	15.8	15.5	15.0	14.2	15.9	11.6	2.2	2.2	2.2	2.1	2.0	2.2	1.6	
대형주	0.8	3.6	8.0	14.1	4.3	0.0	0.1	0.1	0.1	0.1	15.9	16.0	15.7	15.2	14.3	16.1	11.6	2.3	2.3	2.3	2.2	2.1	2.3	1.7	• EPS 증가율 상위 스타일 →대형주
중형주	0.4	3.0	6.0	18.7	3.5	0.0	0.1	0.2	0.6	0.1	14.7	14.8	14.6	14.5	13.7	15.0	12.1	1.9	1.9	1.9	1.8	1.6	1.9	1.4	
소형주	-0.6	4.2	8.9	31.0	4.5	0.0	0.1	0.3	0.8	0.2	14.3	14.5	14.0	13.7	12.4	14.5	10.5	1.5	1.5	1.5	1.5	1.3	1.5	0.4	• EPS 증가율 하위 스타일 →중형주
성장	-0.2	3.2	4.7	5.6	4.0	0.0	0.1	0.1	0.3	0.1	21.6	22.1	21.4	21.2	22.4	25.0	18.7	3.8	3.9	3.8	3.9	4.1	4.4	3.4	
가치	2.7	3.7	10.5	24.6	4.3	0.0	0.1	0.2	0.2	0.1	12.5	12.4	12.3	11.7	10.4	12.5	8.6	1.6	1.6	1.6	1.4	1.3	1.6	1.1	

Global Asset Fund Flow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Weekly Flows (ETF+non ETF)		ETF Only		% of Asset (ETF+non ETF)			Comment
			최근1주	10주평균	최근1주	10주평균	최근1주	10주평균	Assets	
주식	선진국	Global	16,624.50	9,070.37	16,948.02	11,151.99	0.24	0.14	7,100,387	• 지난주 글로벌 자금 흐름은 선진국 주식, 채권 위주 유입 흐름 전개 • 선진국 주식형 펀드는 5주 연속 유입세 지속 • 선진국 채권형 펀드는 2주 연속 유입세 지속
		NorthAm	10,841.31	9,668.23	19,243.65	20,774.40	0.07	0.06	15,341,764	
		W.Europe	(370.84)	1,103.63	2,064.43	1,772.25	(0.02)	0.06	2,073,258	
		Asia Pacific	333.82	13.92	60.95	13.36	0.03	(0.00)	1,205,237	
		선진국 합	27,428.79	19,856.15	38,317.04	33,712.01	0.11	0.08	25,720,647	
	신흥국	GEM	10,961.02	4,413.30	9,243.34	3,991.19	0.93	0.39	1,248,408	
		Asia ex-JP	(56,107.83)	(7,055.85)	(55,624.51)	(6,610.79)	(3.90)	(0.47)	1,428,105	
		EMEA	415.44	102.06	257.90	100.00	0.89	0.22	49,528	
		LatAm	1,858.40	375.91	1,771.79	319.81	3.45	0.73	59,902	
		신흥국 합	(42,872.97)	(2,164.58)	(44,351.48)	(2,199.79)	(1.58)	(0.07)	2,785,943	
채권	선진국	Global	(1,973.68)	1,939.34	1,455.64	1,516.40	(0.15)	0.15	1,297,284	
		NorthAm	16,688.44	11,660.07	14,022.87	10,691.64	0.31	0.22	5,405,300	
		W.Europe	1,934.64	1,365.38	1,344.68	638.40	0.10	0.07	2,001,449	
		Asia Pacific	15.53	(15.16)	162.30	107.35	0.02	(0.02)	71,978	
		선진국 합	16,664.95	14,949.64	16,985.48	12,953.79	0.19	0.17	8,776,011	
	신흥국	GEM	3,453.78	1,359.99	1,066.28	574.82	0.93	0.38	380,034	
		Asia ex-JP	(3,194.51)	207.48	(2,787.19)	410.96	(1.28)	0.11	249,021	
		EMEA	92.25	48.57	9.85	9.06	0.22	0.12	43,817	
		LatAm	(35.37)	152.25	118.18	132.53	(0.27)	1.30	13,266	
		신흥국 합	316.14	1,768.30	(1,592.87)	1,127.37	0.05	0.27	686,138	

자료: EPFR, 하나증권

글로벌 ETF 시장의 지역별 자금 흐름 점검

글로벌 수급: 신흥 아시아 ETF 시장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난 대규모 자금 이동으로 인해 글로벌 ETF 시장의 수급 약화 흐름이 지속

- 글로벌 선진 주식형 +169.5억달러, 북미 주식형 +192.4억달러의 자금 유입이 진행되면서 선진국 주식형 ETF 시장으로 총 +383.2억달러가 순유입되었으나, 신흥 아시아 주식형 ETF 시장에서 -556.3억달러가 빠져나가면서 주식형 ETF 시장에서 2주 연속 자금 유출 흐름이 발생
- 글로벌 채권형 ETF 시장에서도 신흥 아시아 지역의 채권형 ETF 시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자금 순유출 현상이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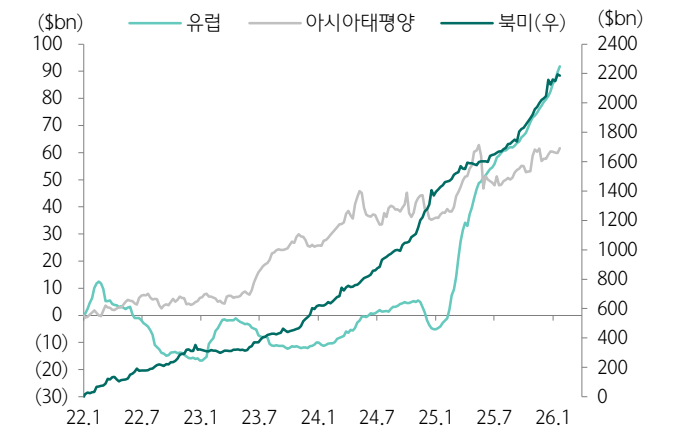
글로벌 ETF 주요 지역별 자금 흐름

(단위: 백만 달러)

자산	지역 구분	세부 지역	Net Flows ($MM)				총자산	유입강도
			1주전	2주전	3주전	4주전	($MM)	(%)
주식 ETF	선진시장	글로벌	16,948	9,600	15,059	11,467	2,602,528	0.68
		북미	19,244	(7,614)	45,318	(11,325)	10,018,934	0.19
		서유럽	2,064	2,185	2,825	1,549	606,196	0.35
		아시아 태평양	61	1,681	(105)	(276)	900,552	0.01
	선진시장 Total		**38,317**	**5,853**	**63,097**	**1,415**	**14,128,210**	**0.28**
	신흥시장	글로벌 신흥	9,243	6,323	5,670	3,578	608,876	1.61
		신흥아시아	(55,625)	(47,207)	9,989	(326)	1,088,144	(5.02)
		EMEA	258	85	212	231	16,694	1.65
		남미	1,772	438	606	(98)	46,464	4.27
	신흥시장 Total		**(44,351)**	**(40,362)**	**16,478**	**3,386**	**1,760,179**	**(2.55)**
	주식 ETF Total		**(6,034)**	**(34,509)**	**79,575**	**4,801**	**15,888,388**	**(0.04)**
채권 ETF	선진시장	글로벌	1,456	1,265	1,865	1,093	200,320	0.74
		북미	14,023	10,270	21,849	9,123	2,560,727	0.55
		서유럽	1,345	679	1,974	(64)	324,532	0.43
		아시아 태평양	162	74	92	108	20,865	0.81
	선진시장 Total		**16,985**	**12,289**	**25,780**	**10,260**	**3,106,443**	**0.55**
	신흥시장	글로벌 신흥	1,066	1,030	599	18	77,904	1.40
		신흥아시아	(2,787)	(2,082)	(3,617)	(6,266)	138,935	(1.99)
		EMEA	10	20	15	(4)	1,403	0.73
		남미	118	74	74	40	4,178	3.03
	신흥시장 Total		**(1,593)**	**(958)**	**(2,928)**	**(6,212)**	**222,420**	**(0.72)**
	채권 ETF Total		**15,393**	**11,331**	**22,852**	**4,048**	**3,328,863**	**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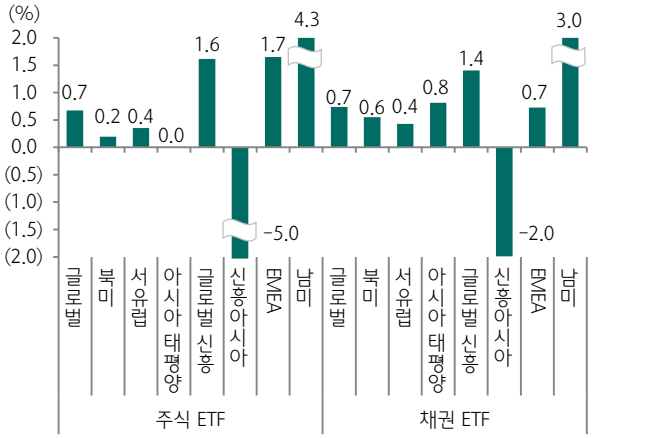
주1. 기준일: 26.01.28
주2. 유입강도(%)는 주간 유입액/ 전주말 총자산 x100
자료: EPFR, 하나증권

2022년 이후 지역별 누적자산 유입현황



자료: EPFR, 하나증권

주식 & 채권 ETF 지역별 주간 자금 흐름 유입 강도



자료: EPFR, 하나증권

주간 추천 글로벌 ETF 리스트

Investment Point: 단기 예상 벗어난 차기 연준의장 지명. 수급 집중 자산들의 되돌림 방어. SMH, PAVE, MADE, QDF, QGRO 활용

- 금주에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기업들이 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 Palantir(2/2), AMD(2/3), 4일 장 전에는 Eli Lilly와 Novo Nordisk, 장 종료 이후에는 Alphabet과 Arm, 5일에 Amazon이 실적을 발표. 경제지표의 경우 1월 고용보고서 확인될 것. 서베이 응답률은 낮지만 정책 해석을 전제 조건으로 시장 변동폭 야기 가능성 존재
- 차기 연준의장으로 케빈 워시가 지명되면서, 그동안 급등세 보이던 금과 은 가격이 급락하고 한국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큰 폭의 약세를 보이는 등 시장 변동성 확대. 실제 최근 발언 내용과 스탠스들을 고려시, 수급 쏠림 현상의 차익실현 되돌림 기조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판단. 공급 주도의 경제학 기반 가운데 AI에 의한 생산성 개선 흐름이 견고한 성장과 완화적 정책 조합으로 연결될 가능성
- ETF 포트폴리오의 경우 중장기 관점에서 CHAT(AI)와 SMH(반도체), ZAP(전력), URA/NLR(원전)에 대한 우선순위를 유지하면서, 정부 정책과 민간 확장 모멘텀을 갖춘 ARKQ/BOTZ(AI&로봇)와 ARKX(우주항공), 현대화된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한 SHLD(방산테크), 개별 수요 기대와 이벤트 모멘텀이 유효한 XBI(바이오테크), 정책 모멘텀 유효한 PAVE/MADE/XLI, 방어 목적의 QDF(퀄리티배당)/QGRO(퀄리티성장) 중심 대응

분류	종목코드 (ETF명)	기초자산	투자포인트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절대수익률 상대수익률
주식형	QDF (FlexShares Quality Dividend Index Fund)	미국 퀄리티 배당 주식	• 우량 배당주 선별 투자. 미국 상장 기업 중 펀더멘털(수익성, 경영 효율성, 현금흐름)이 우수하면서도 배당 수익률이 높은 '퀄리티' 기업들로 구성 • 정책 변화와 금리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들은 하락 방어력이 높음. 성장보다는 안정성과 현금 창출에 집중하는 균형추 역할 기대	2026년 02월 02일	82.93 82.93	- -
주식형	XLE (State Street Energy Select Sector SPDR ETF)	미국 에너지	• 미국 S&P500 에너지 업종 ETF. 에너지 섹터의 대형주 20여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ExxonMobil과 Chevron의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구성 • 트럼프 정부의 중남미 영향력 확장 시도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권 개입 상황이 미국 대표 원유 관련 기업들의 이익 증가 및 자산 회복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 유가 모멘텀은 제한되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개별 요인 주목	2026년 01월 02일	45.65 50.05	9.64% 7.33%
주식형	SMH (VanEck Semiconductor ETF)	글로벌 반도체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버린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2025년 11월 24일	339.12 407.97	20.30% 12.48%
주식형	MADE (iShares US Manufacturing ETF)	미국 제조업 기업	• 미국 내 매출비중 조건 반영. 중대형 제조업, 제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ETF • 관세 구조와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에 초점. 상호관세는 협상 여지가 있는 반면, 품목관세는 협상 가능성이 낮아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공급망의 리쇼어링 현상 확대 전망. 정책 수혜 및 내수 익스포저 기반의 수혜 기대	2025년 10월 27일	30.66 34.64	12.98% 8.04%
주식형	PAVE (Global X US Infrastructure Development ETF)	미국 인프라	• 미국 인프라 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인프라 테마 ETF. 산업재를 중심으로 소재, 건설장비, 운송, 엔지니어링 기업들을 편입하여 구성 • 금융시장 환경 변화 가운데 향후 정책 모멘텀 반영 가능성. 정치적 관점에서도 리쇼어링은 양당 모두 선호하는 방향성. 품목별 관세의 연속성 고려시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 인프라 수요 꾸준히 증가 전망	2025년 11월 24일	46.98 51.44	9.49% 1.67%
주식형	SHLD (Global X Defense Tech ETF)	미국 방산 기술 주식	• 전통 방산기업들과 더불어 AI, 증강현실/가상현실, 사물인터넷, 사이버 보안, 연료시스템 등 첨단 군사 기술에 중점을 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 각국 정부들이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수혜 전망. 미 국방부의 사이버보안 및 디지털 전환 정책에 힘입어 견조한 수급 모멘텀 기대	2025년 4월 25일	50.62 74.44	47.06% 13.71%
주식형	QGRO (American Century US Quality Growth)	미국 퀄리티 성장 주식	• 성장성과 퀄리티를 함께 갖춘 중대형주로 구성된 ETF • 경제 연착륙 시나리오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성장 모멘텀에 대한 관심 증가. 펀더멘털 퀄리티에 대한 해석이 변화하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견고한 주가 흐름을 유지하며 상대 우위 보여줄 전망	2024년 1월 5일	73.83 113.31	53.47% 9.85%
채권형	VCIT (Vanguard Intermediate-Term Corporate Bond ETF)	미국 중기 회사채	• 5년~10년 만기의 투자등급 회사채로 구성된 중기 회사채 ETF •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 임박. 연내 금리인하 폭에 대한 고민이 채권시장의 일시적인 변동성 확대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 존재하나, 연착륙 기대 동반되며 회사채 스프레드 지지 전망	2024년 8월 30일	82.74 83.52	0.94% -24.87%

주1) 기준가는 편입일 전일 종가(미국 주식은 D-1일. 중국/일본 주식은 D일), 주간 단위로 종목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주2) 기준가 및 종가 통화: 미국(USD)
주3) 상대수익률은 벤치마크(BM)지수 대비 수익률을 의미. 주식형 BM은 MSCI AC World Index, 채권형 BM은 Bloomberg Barclays Global Aggregate Bond Index TR, 리츠 BM은 Bloomberg REIT Index, 대체투자 BM은 S&P GSCI Index 적용

미국 52주 신고가

52주 신고가 리뷰: 매크로 이슈와 실적 모멘텀 혼조되며 강보합

- 리뷰 코멘트: 신고가 개수 156개 기록하고 S&P 500 +0.34% 강보합 마감.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FOMC 금리 동결, 실적 발표 후 차익 실현 움직임에 등락 지속
- 전망 코멘트: AI 모멘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디램, 낸드 등 가격 상승세 지속되어 반도체 칩, 장비 중심으로 상승세 지속 전망. 오는 4일 알파벳(구글), 6일 아마존 실적 발표 예정

미국 신고가/특징주 리뷰

Sandisk (SNDK.US)	• 2QFY26 매출액 30.25억 달러(YoY +61%), EPS 6.20 달러(YoY +404%) 기록하며 어닝 서프라이즈 • 데이터센터 매출, 강한 AI 인프라 구축 수요에 QoQ +64% • 3QFY26 가이던스 매출액 44억~48억 달러, EPS 12.00~14.00 달러, OPM 65~67% 전망
Exxon Mobil (XOM.US)	• 4QFY25 매출액 823.1억 달러(YoY -1.3%), EPS 1.71 달러 기록 • 북미 정제 시설의 기록적인 처리량과 디젤 및 가솔린 스프레드 강세에 따른 정제 마진 개선 • 베네수엘라 원유 시장 기대감에 따른 에너지주 투심 개선
Newmont (NEM.US)	•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에 금은 선물 가격 상승세에 신고가 • 국제 금 가격 5,400 달러/온스 돌파하며 연일 상승 • 다만 지난 30일 금 가격 10% 하락하며 상승분 반납
Lockheed Martin (LMT.US)	• 국방 예산 증액, 투자 확대 기대감에 방산주 투심 개선 • 4QFY25 매출액 203.2억 달러(YoY +9%), EPS 5.80 달러, 연간 수주잔고 1,936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 기록 • 2026년에는 미래 성장 위해 CapEx, R&D 투자 50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대비 3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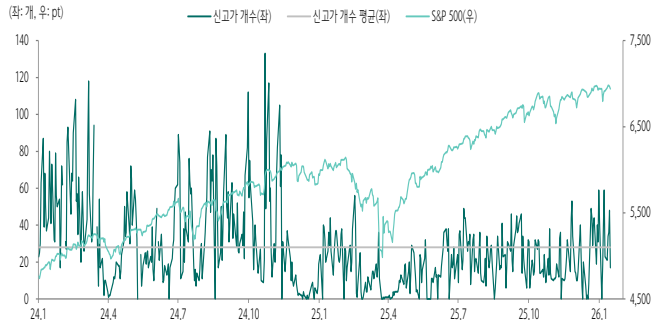
미국 주요 섹터 리뷰

IT	• Lam Research, Micron Technology, Seagate Technology, KLA, Sandisk, Western Digital 등 신고가 • 반도체 칩 가격 상승세에 낸드, HDD, 디램 등 반도체 기업 신고가 지속
산업재	• Northrop Grumman, GE Vernova, L3Harris, Lockheed Martin, Caterpillar 등 신고가 • 방산주 실적 모멘텀과 강력한 AI 수요에 발전 기업 신고가 돌파

미국 신고가 기대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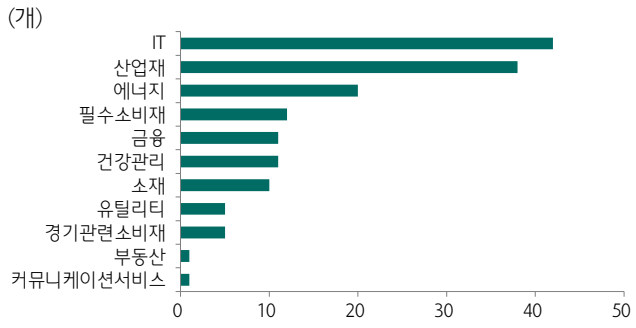
Valero Energy (VLO.US)	• 중질유 공급 늘어나 경질-중질 원유 가격 차이 벌어지면 원료 선택 유연성 높아지고 정제 마진 개선 • 향후 2~3년 내 베네수엘라 생산량 130만~140만 배럴로 늘어나면 추가적인 이익 예상
Alphabet (GOOGL.US)	• 구글 클라우드는 백로그 1,550억 달러에 달해 • 구글 클라우드 가격 인상 발표로 북미 지역 요금 2배 인상 • 클라우드 내부 데이터가 외부로 나갈 때 사용하는 방식의 데이터 전송 요금 조정 발표
Palantir (PLTR.US)	• 국방 예산 증액 기대감과 기업 내 AI 투자 확대 수혜 전망 • 미 공군 프로젝트 메이븐과 베네수엘라 작전 투입으로 국방 모멘텀 지속 기대 • AIP 출시 이후 미국 상업 시장에서 빠르게 확장

매크로 이슈와 실적 모멘텀 혼조되며 강보합



주: 연간 미국 증시, 신고가 개수 추이(1/26~1/30)
자료: CIQ, 하나증권

AI 모멘텀 지속되며 반도체 중심의 IT 업종 강세



주: 주간 미국 증시 섹터별 신고가 현황(1/26~1/30)
자료: CIQ, 하나증권

미국 52주 신고가: 신규 & 기존

신규 신고가 출몰	
Corning (GLW.US)	• 메타와 8조원대 광섬유 공급 계약 발표에 신고가 돌파 • 광섬유 케이블, 방대한 데이터 전송과 초고속 연결에 필수적인 핵심 부품. 구리선보다 전력 소모 5~20배 적고 속도가 빨라 • 급증하는 AI 인프라 수요에 맞춰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하기 위한 필수 부품인 광섬유 케이블 확보 위함
GE Vernova (GEV.US)	• 4QFY25 매출액 109.56억 달러(YoY +4%), 조정 EBITDA 11.58억 달러(YoY +7%), EPS 13.39 달러로 컨센서스 상회 • 총 수주잔고 1,500억 달러, 장비 수주잔고 640억 달러, 가스터빈 수주잔고 83GW로 전분기의 62GW 대비 상승 • 올해 100GW 이상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SRA 단가가 확보된 수주잔고 단가보다 10~20% 높은 상황
Chevron (CVX.US)	• 4QFY25 매출액 468.7억 달러(YoY -10.2%), EPS 1.52 달러 기록 • FY2026 가이던스 연간 생산량 성장률 +7~10%, TCO 잉여 현금흐름 60억 달러 전망 • 향후 18~24개월 내에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 50% 추가 성장 기대
기존 신고가 지속	
Sandisk (SNDK.US)	• 2QFY26 매출액 30.25억 달러(YoY +61%), EPS 6.20 달러(YoY +404%) 기록하며 어닝 서프라이즈 • 데이터센터 매출, 강한 AI 인프라 구축 수요에 QoQ +64% • 3QFY26 가이던스 매출액 44억~48억 달러, EPS 12.00~14.00 달러, OPM 65~67% 전망
Baker Hughes (BKR.US)	• 4QFY25 매출액 73.86억 달러(flat), 조정 EBITDA 13.37억 달러(YOY +2%), EPS 0.78 달러(YoY +11.4%) 기록 • FY2026 가이던스 매출액 272.5억 달러, 조정 EBITDA 48.5억 달러, IET 주문액 135~155억 달러 전망 • LNG 부문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이며, 가스 인프라와 신에너지(지열, CCUS) 부문이 성장을 주도
Micron Technology (MU.US)	• AI 클라우드 인프라 부문 강한 수요로 DRAM 공급 타이트해지면서 수혜 기대 • 소비자 및 소매 시장 출하 줄이고 엔터프라이즈 및 클라우드 고객에 집중하고 있어 • 1-감마 노드로의 전환과 대만에 위치한 PSMC의 P5 팹 부지 인수는 생산 유연성 높이고, 생산 능력 확대 기여 예상

주요 신고가 주가 추이

	업종	시가총액 (조원)	52주 내 신고가 돌파일	돌파 이후 수익률(%)	신고가 이후 최대 낙폭(%)	저점 이후 수익률(%)	YTD (%)
S&P 500 지수	-	-	2025-02-19	+13.5	-18.9	+40.0	+1.7
엔비디아 (NVDA.US)	IT	6,528	2025-06-25	+20.3	-35.9	+96.8	-1.7
알파벳 (GOOGL.US)	커뮤니케이션	3,313	2025-02-03	+70.8	-29.8	+137.5	+9.1
월마트 (WMT.US)	필수소비재	1,431	2025-02-03	+28.8	-22.1	+66.9	-3.4
일라이 릴리 (LLY.US)	건강관리	1,428	2025-11-05	+22.3	-32.7	+51.7	+10.0
JP모건 (JPM.US)	금융	1,226	2025-02-06	+11.3	-24.8	+46.5	-5.3
엑손 모빌 (XOM.US)	에너지	837	2025-11-11	+15.5	-16.0	+38.5	+38.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U.US)	IT	713	2025-06-26	+247.5	-40.8	+576.5	+26.9
팔란티어 (PLTR.US)	IT	509	2025-02-04	+42.3	-40.6	+99.6	-12.0
골드만 삭스 (GS.US)	금융	410	2025-02-06	+43.8	-31.2	+104.7	+3.5
GE 버노바 (GEV.US)	산업재	294	2025-05-20	+67.8	-38.2	+179.5	+11.1
테피스트리 (TPR.US)	경기 관련 소비재	38	2025-02-06	+57.7	-32.0	+114.0	+0.5
알버말 (ALB.US)	소재	28	2025-11-13	+44.0	-47.9	+224.9	+14.6

자료: CIQ, 하나증권

투자유망종목

Investment Point: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 이후 유동성 긴축 우려로 변동성 확대. 실적 시즌 이익 성장 기대감 높은 기업 주목

- 글로벌 증시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 이후 유동성 긴축 우려로 달러 강세, 금·은 가격 폭락 등 금융자산 변동성 확대된 영향으로 혼조 흐름. 다만 이번 하락이 펀더멘탈(실적)과 무관하다는 점과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우려 경감되면서 주가 되돌림 현상 나타날 전망. 이번주 팔란티어, 알파벳, 퀄컴,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예정된 만큼 실적에 따른 주가 민감도 높을 전망. AI 인프라 확장되는 국면에서 AI 모멘텀 보유하면서 이익 성장 기대감 높은 기업들에 대한 관심 유효. 투자유망종목은 팔란티어(PLTR.US) 신규 편입

  * 차주 실적 발표 예정 기업: -

종목	종목코드	국가	업종	시가총액 (조원)	편입일	편입 기준가	전일 종가	절대 수익률	상대 수익률
엔비디아	NVDA.US	미국	정보기술	6,525	1/6	188.12	-1.33%	-2.87%	-1.33%
알파벳	GOOGL.US	미국	커뮤니케이션	3,311	1/6	316.54	8.61%	7.07%	8.61%
일라이 릴리	LLY.US	미국	건강관리	1,428	1/6	1,041.51	0.25%	-1.28%	0.2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U.US	미국	정보기술	712	1/6	312.15	40.25%	38.72%	40.25%
팔란티어	PLTR.US	미국	정보기술	509	2/3	147.76	신규	-	-
캐터필러	CAT.US	미국	산업재	467	1/6	616.10	12.14%	10.61%	12.14%
RTX	RTX.US	미국	산업재	390	1/13	193.85	3.73%	3.21%	3.73%
블룸 에너지	BE.US	미국	산업재	53	1/6	103.87	50.39%	48.86%	50.39%
바이두	9888.HK	중국	자유소비재	71	1/6	145.90	141.40	-3.08%	-4.62%
동방전기	600875.CH	중국	산업재	16	1/6	24.70	25.71	4.09%	2.56%

주1) 기준가는 편입일 전일 종가(미국/유럽 주식은 D-1일. 중국/홍콩 주식은 D일), 주간 단위로 종목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주2) 기준가 및 종가 통화: 미국(USD), 유럽(EUR), 중국(RMB), 홍콩(HKD)
주3) 상대수익률은 각 종목별 편입일 기준 벤치마크(BM) 지수 대비 수익률을 의미. BM은 MSCI AC World Index

✓ **글로벌 투자유망종목 제외종목: 넷플릭스(종목 변경, 1/20~2/2, -5.95%)**

엔비디아 (NVDA.US)

Graphics, Compute & Networking의 두 부문을 운영하는 인공지능 컴퓨팅 회사

국가	미국
업종	정보기술
시가총액(조원)	6,525
편입일	1월 6일
EPS증감율(2026E)	+64.84%
PER(2026E)	56.00
PBR(2026E)	39.10

- Investment point
  3QFY26 매출액 570.0억 달러(YoY +62%), EPS 1.30 달러(YoY +60%)로 컨센서스 상회
  고사양 블랙웰 확장 원활하고, 올해 루빈 플랫폼 생산 일정도 차질 없어
  추론형 에이전트 AI 등장으로 필요 연산량 과거대비 100배, 1000배 이상 증가 예상
- Risk
  빅테크의 CapEx 투자 둔화 및 AI 수익화 부진

알파벳 (GOOGL.US)

AI 포트폴리오 확대로 주력 상품 & 서비스 수요 강세

국가	미국
업종	커뮤니케이션
시가총액(조원)	3,311
편입일	1월 6일
EPS증감율(2026E)	+34.51%
PER(2026E)	25.20
PBR(2026E)	7.60

- Investment point
  3QFY25 매출액 1,023.5억 달러(YoY +16%), EPS 2.87 달러(YoY +35%)로 컨센서스 상회
  FY2025 CapEx 910억~930억 달러 전망(이전치 850억 달러) 전망
  AI 기반 검색으로 쿼리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향후 광고 매출 가속화 기대
- Risk
  광고 시장 둔화 및 AI CapEx 감소로 AI 모멘텀 부진

일라이 릴리 (LLY.US)

대사질환, 종양, 면역 질환에 강점을 가진 글로벌 종합제약사

국가	미국
업종	건강관리
시가총액(조원)	1,428
편입일	1월 6일
EPS증감율(2026E)	+121.02%
PER(2026E)	65.70
PBR(2026E)	45.20

- Investment point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과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 시장 점유율 격차 확대 중으로 소비자 시장에서 마운자로 시장 점유율 확대 중
  자사 젭바운드 보험 적용 문제로 CVS 약품 혜택 프로그램 탈퇴
  트럼프 행정부와 GLP-1 거래 가격 발표로 3년 간 일라이 릴리 관세 면제 결정
- Risk
  비만치료제 성장 둔화로 실적 모멘텀 약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U.US)

DRAM, NAND 등 메모리 제품 포트폴리오 사업 영위

국가	미국
업종	정보기술
시가총액(조원)	712
편입일	1월 6일
EPS증감율(2025E)	-
PER(2025E)	76.60
PBR(2025E)	2.30

- Investment point
  4QFY25 매출액 113.2억 달러(YoY +46%), Non-GAAP EPS 3.03 달러(YoY +157%) 기록
  HBM 수요 유지되는 가운데, 타이트한 일반 DRAM 공급으로 전방위적 가격 인상 진행
  eSSD 중심의 NAND 개선세 확인되며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확대
- Risk
  전방 수요 약화에 따른 반도체 가격 상승세 둔화

팔란티어 (PLTR.US)

데이터 분석 및 통합 플랫폼 기업으로 온톨로리 기술 보유 기업

국가	미국
업종	정보기술
시가총액(조원)	509
편입일	2월 3일
EPS증감율(2026E)	+16.04%
PER(2026E)	234.54
PBR(2026E)	47.74

- Investment point
  4QFY25 매출액 14.07억 달러(YoY +70%), EPS 0.25 달러(YoY +79.0%) Rule of 40: 127%
  1QFY26 가이던스 매출액 15.34억 달러(YoY +73.6%), 영업이익률 56.8%로 가이던스 상향 조정
  Rule of 40 지표 상승은 팔란티어의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음을 입증
- Risk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캐터필러 (CAT.US)

건설 및 광산 장비, 오프로드 엔진, 산업용 가스터빈 등 사업 영위

국가	미국
업종	산업재
시가총액(조원)	467
편입일	1월 6일
EPS증감율(2026E)	-9.51%
PER(2026E)	18.0
PBR(2026E)	9.60

- Investment point
  4QFY25 매출액 191억 달러(YoY +18.0%), EPS 5.16 달러로 컨센서스 상회
  각국 인프라 투자 지속, 신흥국 광산 수요 등 향후 업황 전망 긍정적
  데이터센터 프라임 파워: 하이퍼스케일러, 콜로케이션 업체 수요 견조. Titan 350 터빈 주문 호조
- Risk
  AI 투자 및 리쇼어링 수요 감소

RTX (RTX.US)

Raytheon, United Techonologies의 항공기 사업이 합쳐져 만들어진 방산 기업

국가	미국
업종	산업재
시가총액(조원)	390
편입일	1월 13일
EPS증감율(2026E)	+38.64%
PER(2026E)	17.50
PBR(2026E)	1.80

- Investment point
  트럼프, 미국 국방예산 1조 5천억 달러 실현 언급하며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 국방비 대폭 인상 전망
  미 국방부의 다년간 군수물자 보충 사이클, NATO 재무장에 따른 유럽 방산 주문 증가 수혜
  EU 방산 조달의 80%가 비EU 기업으로부터 공급되고 RTX는 미사일, 레이더 플랫폼 공급
- Risk
  미국 국방예산 감산 결정 및 EU 방위비 증액 중단

블룸 에너지 (BE.US)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시스템과 전해조 개발, 제조, 판매 기업

국가	미국
업종	산업재
시가총액(조원)	53
편입일	1월 6일
EPS증감율(2026E)	-
PER(2026E)	-
PBR(2026E)	11.40

- Investment point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의 27%를 SOFC가 충족할 것이라는 기대감 유효
  대만 콴타컴퓨터 자회사인 QMN에서 5억 달러 규모의 수주 발주
  비용, 전력 손실 측면에서 블룸에너지의 800V DC 전력 솔루션 성능 우수
- Risk
  타 전력 발전원 공급 병목 완화에 다른 SOFC 수요 둔화

바이두(9888.HK)

AI 칩 자회사 별도 상장, 반도체 국산화 기대감 유효

국가	중국
업종	자유소비재
시가총액(조원)	71
편입일	1월 6일
EPS증감율(2026E)	12.60%
PER(2026E)	14.10
PBR(2026E)	0.90

- Investment point
  AI 칩 자회사 Kunlunxin 홍콩거래소 분할상장 추진은 반도체 내재화 역량을 보유한 플랫폼 기업
  자금 조달 채널 확충과 기업가치 독립 부각을 통해 AI 기반 사업 전반의 리레이팅을 유도
  반도체 매출(AI 클라우드 인프라) '26년 2배 증가 전망, 구조적 성장 국면 진입 기대
- Risk
  경쟁 심화, 미중 갈등

동방전기(600875.CH)

중국 원전 설비 점유율 1위, SMR/핵융합 기술 선도적 입지 확보

국가	중국
업종	산업재
시가총액(조원)	16
편입일	1월 6일
EPS증감율(2026E)	+25.0%
PER(2026E)	17.0
PBR(2026E)	1.80

- Investment point
  중국의 3대 전력 설비 제조사 중 하나로 원자력/수력/석탄 발전을 포함한 종합 전력 설비 기술력 확보
  원전 설비 점유율 40%로 SMR/핵융합 연구개발 진전과 상용화에 따른 주가 모멘텀도 기대
  초대형 수력 프로젝트 착공에 따른 대규모 수주 기대감 유효
- Risk
  프로젝트 및 실적 인식 지연, 정책 변화

2026년 01월 29일 | Global Equity

메타(META.US)

AI 광고 수익 효과 뚜렷, 마진 압박 우려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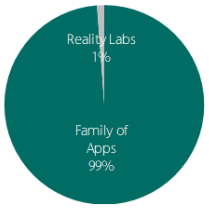
미국

TP(컨센서스)	832.78 USD
CP(01.28)	668.73 USD

Key Data

국가			미국
상장거래소			뉴욕거래소
산업 분류			정보기술
주요 영업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www.facebook.com
시가총액(십억USD)			1,685
시가총액(조원)			2,407
52주최고/최저()			796.25/479.8
주요주주 지분율(%)			
The Vanguard Group			8.88
BlackRock			7.68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1.52	(6.81)	(0.83)
상대	0.47	(15.55)	(15.83)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164,501	200,966	237,909	278,245
영업이익	69,380	83,276	86,440	99,776
순이익	79,050	80,885	84,939	98,873
EPS(USD)	30.24	31.42	32.95	38.26
EPS(YOY, %)	60.5	3.9	4.9	16.1
ROE(%)	37.6	30.2	28.8	27.0
PER(배)	22.1	21.3	20.3	17.5
PBR(배)	8.12	7.66	5.91	4.81
배당률(%)	0.3	0.3	0.3	0.4

자료: Meta, Bloomberg, 하나증권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AI 효과로 광고 노출 예상치 크게 상회

25년 4분기 실적은 매출액 599억 달러(+24% yoy), 순이익 228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각각 3%, 7% 상회했다. 4분기 서프라이즈의 핵심 요인은 AI 효과에 따른 광고 노출이 18% 증가하며, 예상치 12%를 크게 상회했다. 광고 노출이 개선된 것은 AI 효과로 소비자들이 메타 SNS 플랫폼 방문과 참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AI 모델에 따른 타겟 광고의 효율성이 그 만큼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스타그램은 미국 내 릴스 시청 시간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 페이스북 미국 내 비디오 시청 시간은 두 자릿수 증가, 스레드 이용시간은 전분기 대비 20% 증가했다. 4분기에 광고 선별 모델인 GEM 학습에 쓰는 GPU를 2배로 늘리고, 더 긴 맥락을 이해하는 구조를 도입했다. 이는 페이스북 광고 클릭 3.5%, 인스타그램 전환 1% 증가로 이어졌다. AI에 대한 투자가 광고 실적으로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26년 CAPEX 가이던스 1,150~1,350억 달러

26년 CAPEX 가이던스를 1,150억~1,350억 달러로 제시하며 시장 예상치 1,100억 달러를 크게 상회했다. 컴퓨팅 수요는 여전히 공급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외부 클라우드(구글, 코어위브, 네비우스, 오라클) 사용을 병행하더라도 올해 말 자체 추가 용량이 가동되기 전까지는 컴퓨팅 제약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CAPEX 확대와 관련된 불확실성 요인이 있어 2026년 영업이익 가이던스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전년 수준을 상회하는 정도로 전망하였다. 또한 2026년 인프라 투자를 위한 현금은 충분하나, 향후 외부 자금 조달 기회를 모색할 것이고, 그에 따라 장기적으로 순부채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코멘트했다. AI 산업에서의 주도권을 갖기 위한 투자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1Q26 매출 가이던스 예상치 크게 상회, 지출 증가는 마진 압박 요인

1분기 매출 가이던스 535~565억 달러(+30% yoy)를 제시, 중간값 기준 시장 예상치를 7% 상회했다. 강한 광고 수요 상승과 메타 AI에 따른 광고 노출 확대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AI에 대한 공격적인 지출 확대가 우려가 되고 있으나 메타의 주력 분야인 광고 사업에서 AI 효과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2026년 성장 스토리에 대한 전망을 밝히는 요인이다. 추가적으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도 충분하다. 특히 주목하는 부문은 스마트 안경 사업이다. 메타의 2025년 스마트 안경 판매량은 전년대비 3배가 증가했다. AI의 엣지 디바이스로서 스마트 안경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 되기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준비를 시작한 메타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된다. 작년 6월 구성된 MSL(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의 성과도 주목할 사항이다. 늦어도 26년 상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 되는 메타의 신규 모델 Avocado의 성능이 시장 기대에 부합한다면 투자 심리 개선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영업마진 하락을 얼만큼 방어할 수 있는지가 리스크 요인이다. 26년 OPM에 대한 시장 컨센은 전년대비 -5%p 하락이다. 1) AI 모델을 통한 광고 모델 고도화로 매출 성장을 가속화하고, 2) Reality Labs 손실을 25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메타의 수익성 전략이다. 실적 발표 후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7% 상승했다. AI 광고 수익화 속도가 기대보다 빠르다는 점은 중장기 메타의 강한 상승 잠재력을 확인 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26년 지출 확대에 따른 영업마진 관련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은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 주가 변동성이 높다는 점은 고려할 사항이다.

2026년 01월 29일 | Global Equity

마이크로소프트(MSFT.US)

스토리는 변함 없다. 시간이 좀더 걸리는 이유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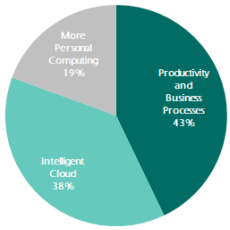
TP(컨센서스)	616.13 USD
CP(01.28)	481.63 USD

Key Data

국가	미국
상장거래소	뉴욕거래소
산업 분류	정보기술
주요 영업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www.microsoft.com
시가총액(십억USD)	3,573
시가총액(조원)	5,073
52주최고/최저()	555.45/344.79
주요주주 지분율(%)	
The Vanguard Group	9.49
BlackRock	7.82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1.12)	(6.04)	8.88
상대	(2.17)	(15.57)	6.66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245,122	281,724	326,400	375,882
영업이익	109,433	126,245	149,258	171,971
순이익	88,136	101,832	119,653	140,348
EPS(USD)	11.90	13.70	16.08	18.94
EPS(YOY, %)	22.0	15.5	17.4	17.7
ROE(%)	37.1	33.3	31.3	26.7
PER(배)	37.8	36.3	30.0	25.4
PBR(배)	12.4	10.8	8.0	6.2
배당률(%)	0.7	0.7	0.7	0.8

주: 조정(Non-GAAP) 실적 기준
자료: 마이크로소프트, Bloomberg, 하나증권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Capex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 Azure 성장 속도는 높아진 기대치 소폭 하회 이유

FY26년 2분기(12월결산) 매출을 비롯한 주요지표가 컨센을 상회하고, 마진 압박 우려와 달리 OPM이 예상치 보다 1.6ppt 높았으며, EPS YoY 24% 증가 등 놀라운 실행력을 입증했음에도 주가는 시간외거래에서 -6% 하락했다. Capex 증가 속도는 예상보다 빠른 반면에 Azure 성장 속도가 높아진 시장 기대보다 소폭 느리기 때문이다. Azure 2분기 성장은 38%(고정환율) 기록, 가이던스를 1ppt 상회했으나 시장 기대치 상단(+2~3ppt)에는 미치지 못했다. 3분기 가이던스(37~38%)도 예상치(38%)를 소폭 하회했다. 시장에서 제기되는 Capex 지출의 ROI 우려와 관련하여 MSFT의 입장은 1)상반기 도입된 GPU를 전량 Azure에 할당했다면 성장률은 40%를 상회했을 것이나 Capex는 Azure 뿐만 아니라 M365 Copilot, GitHub, R&D 등 스택 전반의 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 2)하드웨어 내용연수(6년) 대비 RPO 평균 기간(2.5년)이 짧은 것은 M365 등 단기 계약 비중 때문이며 서버 내용연수 전체에 대한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기에 투자에 대한 미회수 리스크는 없다는 점이다.

주요 지표 예상치 상회, 전체 클라우드 매출 515억 달러(+26%)

2분기 매출 813억 달러(+17% yoy), EPS 4.14달러(+24%)를 기록했다. 전체 클라우드 매출은 분기 기준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상회, 515억 달러(+26%)를 달성했다. 오픈AI 대규모 계약체결과 앤스로픽 계약 등으로 커머셜 계약은 230% 증가, RPO가 6,250억 달러(+110%)로 확대되었다. RPO에서 오픈AI 비중(45%)이 높다는 지적이 있으나 나머지 포트폴리오도 28% 증가, 고객/산업/지역별로 다각화된 성장세를 입증했다. Capex는 375억 달러로 컨센(363억)을 12억 달러 상회했다. Capex 3분의 2가 단기 자산 비중이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AI 에이전트 플랫폼과 M365 Copilot, GitHub Copilot 등 AI 제품군의 주요 지표는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데이터 Fabric 플랫폼은 출시 2년 만에 매출 run-rate 2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Foundry에서 1조 토큰 이상을 처리하는 고객사 수가 250개를 상회했다. M365 Copilot seat 추가는 160% 이상 성장, 기록을 경신했으며 DAU는 10배 확대되었다. GitHub Copilot 유료 구독자 수는 4.7백만(+75%)에 도달했다.

기대 요인 변함 없으나 시간이 좀더 걸리는 이유

AI 수익화 속도와 시장 기대치 사이의 괴리는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AI &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가장 빠른 사업자, 2)M365, GitHub, 보안 침투율 꾸준한 상승, 3) 기업의 IT 지출 내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는 가장 유리한 포지션 등 MSFT에 대한 기대요인에는 변함이 없다. 현재의 Capex 투자는 AI 스택 전반에 걸쳐서 중장기 TAM 확장을 선점하기 위한 필연적 단계라는 MSFT의 전략적 판단은 타당해 보인다. 시간외 거래에서 하락을 반영한 주가는 12M FWD PER 26배로 3년 밴드 하단(25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시장에서 제기되는 의문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이나 MSFT가 가진 경쟁력 요인은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중장기 업사이드 크다고 판단된다.

2026년 1월 28일 | Global Equity

RTX Corp.(RTX.US)

모든 게 좋았다. 기분 좋게 2026년 시작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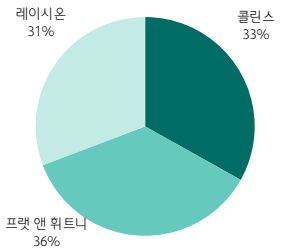
TP(컨센서스)	206.86 USD
CP(1.27)	201.28 USD

Key Data

국가	UNITED STATES
상장거래소	New York
산업 분류	산업재
주요 영업	우주항공 & 국방
홈페이지	www.rtx.com
시가총액(십억USD)	269.9
시가총액(조원)	389.4
52주최고/최저(USD)	203.03/112.27
주요주주 지분율(%)	
CAPITAL GROUP COMPANIES INC	10.48
VANGUARD GROUP	9.16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8.7	29.0	56.8
상대	8.0	19.7	41.8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80,738	88,603	92,455	98,326
영업이익	9,800	11,537	12,251	13,555
순이익	4,774	6,732	8,068	9,212
EPS(USD)	5.73	6.29	6.72	7.46
EPS(YOY, %)	13.2	9.8	6.8	11.1
ROE(%)	8.0	10.7	13.7	14.6
PER(배)	20.2	29.1	30.0	27.0
PBR(배)	2.6	3.8	4.0	3.9
DPS(USD)	2.5	2.7	2.9	3.1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eunlee@hanafn.com

2026년에도 기대되는 RTX

2026년에도 RTX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지속한다. RTX가 제시한 FY 2026 실적 가이던스는 컨센서스 수준이지만, 그 이상의 호실적을 달성할 여지가 높다. 상용 제품 측면에선 항공기 생산이 늘고 있고, 양호한 항공 여행 수요로 이익이 높은 에프터마켓 사업이 견조할 것이다. 방산에선 미 정부가 공격적인 방위비 예산 계획을 발표했으며, 전 세계 국가들에게 국방비 증대를 강요하고 있다. 전 사업부에 AI를 도입해 생산성이 좋아진 것도 긍정적이다.

RTX는 2026년에도 견조한 매출과 이익으로 발생시킨 양호한 현금 흐름으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집행할 것이다. 트럼프는 방산 기업들의 과도한 주주 환원 정책을 문제 삼았으나, 본질적인 의도는 미국에 투자를 늘리라는 것이다. RTX는 정부 기조에 맞춰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장하고 있으며, 골든 돔 등 주요 프로젝트와 관련해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투자는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성장과 주주 환원 강화의 선순환을 기대한다.

컨센서스 상회한 FY 4Q25 실적

RTX의 FY 4Q25 실적은 매출액 242억 달러(YoY +12.1%, QoQ +7.8%), EBITDA 41억 달러(YoY +3.4%, QoQ +14.2%), EPS 1.55 달러(YoY +0.6%, QoQ -8.8%)다. 각각 시장 컨센서스를 7.1%, 20.8%, 5.7% 상회했다. 상용 OE(Original Equipment, 부품 및 장비) 10%, 상용 에프터마켓 18%, 방산 8% 성장이 주요한 요인이다.

수주잔고는 2,680억 달러(YoY +22.9%, QoQ +6.8%)다. 상용 수주잔고 1,610억 달러(YoY +28.8%, QoQ +8.8%)다. 항공기 생산률 개선과 항공을 이용한 여행 증가가 긍정적이다. 군용 수주잔고 1,070억 달러(YoY +15.1%, QoQ +3.9%)다. 연간 수주 대 매출 비율은 1.31로 견조하다. 잉여현금흐름은 32억 달러(YoY +549.4%, QoQ -20.6%)로 시장 전망 대비 55.3% 높다. GTF 엔진 금속 분말 관련 비용과 관세 등의 영향이 있었음에도 사업부 전반의 양호한 매출과 이익 덕분이다.

상용, 방산 모두 기대되는 FY 2026

RTX의 FY 2026 연간 실적 전망은 매출액 925억 달러(YoY +4.4%), EPS 6.70 달러(YoY +6.5%), 잉여현금흐름 8,500만 달러(YoY +7.1%)로 블룸버그 컨센서스 수준이다. RTX는 FY 2026 상용 및 방산 수주에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상용 사업은 항공기 생산 개선과 항공 여행 증가를 강조했다. 전 세계 RPK는 전년에 이어 올해에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방산 분야는 미국의 전쟁부 기조를 강조했다. 전 세계 방산 지출 확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콜린스: 상용 OE와 애프터마켓 전반적인 강세

콜린스의 매출은 77억 달러(YoY +2.6%, QoQ +1.5%)로 컨센서스를 3.9% 상회했다. 유기적 매출 성장률은 8%로 컨센서스 2.3%보다 높다. 상용 OE와 애프터마켓 전반의 매출 호조 덕분이다. 상용 OE는 광동체와 협동체 모두 판매량이 늘었다. 상용 애프터마켓 매출은 13% 확대됐는데, 부품 공급 24%, 수리 11%, 개조 및 업그레이드 7% 증가 덕분이다. 방산매출은 2% 증가했는데, 전년 높은 기저가 있었다.

영업이익은 12억 달러(YoY +1.3%)로 시장 컨센서스를 2.1% 상회했다. 이익이 좋은 상용 애프터마켓 매출 확대 및 상용 OE 판매량 증가 덕분이다. 콜린스의 사업부 매각, 관세 등은 일부 악영향을 미쳤다. 콜린스의 FY 2026 매출 전망은 조정 기준 한 자릿수 중반 수준의 성장을 제시했다. 상용 OE는 약 10%, 상용 에프터마켓은 한 자릿수 후반, 방산은 한 자릿수 중반 성장을 예상했다.

프랫 앤 휘트니: 모든 부문 양호

프랫 앤 휘트니의 매출은 95억 달러(YoY +25.5%, QoQ +12.7%)로 시장 컨센서스를 12.1% 상회했다. 모든 부문이 강세였다고 CFO는 평가했다. 각 부문별 매출 성장률은 상용 OE 28%, 상용 에프터마켓 21%, 군용 엔진 30%다. 영업이익은 8억 달러(YoY +8.2%)로 시장 예상보다 9.6% 견조하다. 전반적인 판매 호조와 수익성 높은 제품 판매 등은 이익에 긍정적이었다. 관세와 높아진 판매관리비 등이 이익을 일부 훼손했다.

프랫 앤 휘트니의 FY 2026 매출은 한 자릿수 중반 확대될 것으로 CFO는 예상했다. 상용 OE는 대형 상용 및 프랫 캐나다 엔진 인도 덕분에 한 자릿수 초반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상용 에프터마켓은 GTF 및 프랫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대형 상공 엔진 전반의 물량 증가를 언급하며 한 자릿수 후반 증대를 전망했다. 군용 부문에선 F135 생산 및 유지보수 물량 덕분에 한 자릿수 중반 성장률을 제시했다.

이익이 높은 상용 에프터마켓 부문과 군용 부문의 매출 증대는 영업이익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상용 OE 매출 확대는 이익 훼손 요인이 될 것이다. 새로운 부품 판매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낮다. 단기 수익성을 약화시킬 수 있지만 RTX의 설치 기반을 확대한다. 에프터 마켓 매출로 전환되면서 중장기적인 이익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더 이상 GTF 엔진 문제(금속 분말 문제)는 RTX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운항불가 항공기 수치가 전년 대비 명확히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4분기 실적을 감안하면 MRO 등에서 수리 병목 현상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레이시온: 견조한 무기 수요 & 생산성 개선 + 전 세계 국방 지출 확대의 기회

레이시온의 매출은 77억 달러(YoY +7%, QoQ +8.7%), 영업이익은 9억 달러(YoY +21.6%)다. 각각 시장 컨센서스를 4.6%, 7.2% 상회했다. 지상 및 방공 시스템과 해군 프로그램 등의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이익이 좋아진 이유는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생산성 개선도 함께 이뤄졌기 때문이다. 엔도버 공장 생산 라인에 인공지능을 도입했다. 생산주기를 35% 단축시켰다. 미사일과 레이더 생산 속도가 빨라졌다. 수주잔고는 75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다. 4분기에만 103억 달러 수주를 달성했다. Book to Bill 비율은 1.43이다.

레이시온의 FY 2026 전망도 밝다. 2026년 달성해야 할 목표 매출의 85%가 이미 주문 장부에 찍혀있는 상황이다. 제품 생산은 매출로 직결된다. 생산성은 인공지능을 도입한 덕분에 향상됐다. 호실적이 기대되는 이유다.

RTX는 레이시온의 FY 2026 영업이익률 12% 달성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전 세계 국방 지출 증대로 수익성이 좋은 해외 수주 비중이 47%까지 늘었다. 생산성도 개선됐는데, 주요 탄약 및 미사일 생산량이 2025년에 20%늘었다. 2026년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레이시온은 골든 돔에 대한 기대도 언급했다. 센서와 요격 미사일(이펙터) 등 전반적인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이슈 코멘트

미국 기업 & 산업 | 2026.02.03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esearch Assistant 이재은 jaeeunlee@hanafn.com

올해 미국인들 연말 정산 환급 많이 받는다(OBBBA)

핵심은 AI 인프라, 위성은 경기소비재: '투 트랙' 전략 유효

- 2월 중·하순부터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Act) 효과로 미국의 세금 환급금은 늘어날 것이다. 증가한 미국인들의 가처분 소득 효과가 나타날 여지가 있다. 2025년 소비 관련 섹터 ETF의 수익률은 경기소비재(XLY) +6.4%, 필수소비재(XLP) -1.2%다. S&P 500이 16.4%보다 부진했다. 경기소비재는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기술(XLK, +23.8%), 커뮤니케이션 서비스(XLC, +21.6%)뿐만 아니라 방어적 섹터인 유틸리티(XLU +12.8%), 헬스케어(+12.5%) 대비 열위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미국인들의 세금 환급으로 소비 여력이 증가한다면 소비재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 핵심 포트폴리오는 AI 인프라 기업들을 유지하면서 경기소비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 포트폴리오 내 핵심 종목은 AI 관련 기업들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소비재는 일부 위성 포트폴리오로 접근할 것을 권한다. 현재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핵심은 소비가 아닌 AI 자본 지출 사이클이기 때문이다. 투자를 견인하고 있는 초대형 기술 기업들의 자본 지출 전망은 상향되고 있다. 미국 정부와 연준의 정책도 AI에 우호적일 것이다. 미국 정부는 2018년 경험한 초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투자로 인한 낙수 효과를 재현하려 할 것이다.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캐빈 워시는 중국이 아닌 미국 방식의 AI 혁신을 이끌려면 연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 미국인들의 4분기(9~12월) 발생한 소득에 대한 추정 소득세 납부 기한은 1월 15일이지만, 처리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미국 재무부의 일반 계정(US Treasury General Account Balance)가 1월 30일 기준 8,932억 4,500만 달러 수준이다. 1월 30일 재무부의 일일 재무부 상태 보고서(Daily Treasury Statement)의 비 원천징수 개인 및 자영업세는 전자납부 5억 9,100만 달러, 기타 납부 20억 5,700만 달러다. 1월 중순의 급증세가 진정된 것으로 보이며, 2월 초 잔여 세금 유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한다.
- 2월 중순 또는 말엔 세금 환급금이 미국 증시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미국의 세금 환급은 여느 때보다 많을 것이다. OBBBA 효과 덕분이다. 미국 조세 재단(Tax Foundation)에 따르면 2025년 귀속분 감세 효과는 약 1,290억 달러다. 최대 1,000억 달러 수준이 환급금 형태로 풀릴 것이다. 미국인들의 평균 환급액은 전년 대비 약 300 달러에서 1,000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 OBBBA로 인해 1) 자녀 세액 공제 200 달러 인상, 2) 일반 납세자 표준 공제 인상(일반 750 달러, 부부 공동 납세자 1,500 달러), 3) 고령자 공제 6,000 달러 신설(소득이 일반 75,000 달러, 부부 합산 150,000 달러 초과 시 단계적 감소), 4) 자동차 새로 구매할 경우 대출 이자 공제 혜택 10,000 달러, 5) 팁 소득 최대 25,000 달러, 6) 초과 근무 소득에 대한 최대 12,500 달러 공제 신설, 7) 주 및 지방세(SALT) 공제(연 소득 50만 달러 미만 납세자의 소득 상한선 4만 달러로 인상) 등이 시행됐다.
- OBBBA는 계층별 맞춤형 수혜를 제공한다. 팁과 초과 근무 수당 공제는 서민층의 기초 소비 체력을 보강할 것이다. SALT 한도 상향은 고소득 중산층의 지갑을 열 것이다. 캘리포니아, 뉴욕 등 세금이 비싼 주에 사는 고소득 중산층의 자금 여력이 커진다. 고소득 중산층의 경우 필수 소비는 충족된 사람들이다. 자금은 저소득층 비중이 높은 필수소비재보다 재량 소비나 증시로 향할 확률이 높다. 3월 봄방학 시즌과 자동차 세액 공제를 고려하면 여행 및 레저 관련 기업들(항공, 여행 플랫폼 등), 자동차 관련 기업들(전기차, OEM, 중고차 플랫폼, 수리센터 등), 소매업체(온·오프라인) 등에 대한 수혜가 있을 수 있다.
- 상반기 핵심 포트폴리오로 2026년 전망에서 추천한 AI 인프라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위성 포트폴리오로 작년 시장 대비 부진했던 경기소비재를 권한다. 초거대 기술기업들의 돈은 AI 인프라로 몰리고 있고, 고소득 중산층의 여유 자금은 재량 소비(경기소비재)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2026년 1월 29일 | Global Equity

GE 버노바(GEV.US)

소형터빈이 위협할 수 없는 안정성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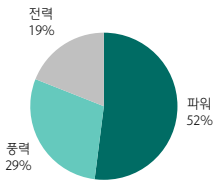
TP(컨센서스) 770.20 USD
CP(1.28) 711.59 USD

Key Data

국가	미국
상장거래소	NYSE
산업 분류	산업재
주요 영업	전기 장비
홈페이지	www.gevernova.com
시가총액(십억USD)	187.9
시가총액(조원)	268.9
52주최고/최저(USD)	677.2/252.3
주요주주 지분율(%)	
VANGUARD GROUP	9.10
FMR	9.06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10.6)	76.6	108.4
상대	(10.7)	50.0	93.9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34,935	38,068	41,836	47,805
EBITDA	2,035	3,196	5,388	8,157
순이익	578	1,984	3,538	5,634
EPS(USD)	1.98	7.19	12.9	20.68
EPS(YOY, %)	- 263.10%	79.40%	60.30%	
ROE(%)	18.3	18.78	13.78	---
PER(배)	54.2	37.32	52.16	---
PBR(배)	9.5	21.7	20.2	---
배당률(%)	0.0	0.2	0.3	---

주: 2024년 4월 분사
자료: GE버노바, Bloomberg 시장예상치, 하나증권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4Q25 Re: Prolec 인수 예정보다 빠른 2월 초

매출액 109.6억 달러(YoY +4%), 조정 EBITDA 11.6억 달러로 매출액은 컨센(102.1억)을 상회했으나 조정 EBITDA는 컨센(12.7억)을 하회했다. 수주는 222.6억 달러(+67%)로, 12월 9일 I/D이후 12월 마지막 3주 동안에만 추가로 6GW를 수주해 4분기 신규 총 24GW를 계약했다. 연말 기준 수주잔고는 1,500억 달러(+25%)를 달성했다. Prolec(변압기 제조) 인수는 본래 2026년 중순 경 거래 마무리를 예상했으나 신속한 승인으로 2월 2일 거래 종료를 전망하고 있다. 말타에서 진행 중인 연료전지 프로그램은 기술적으로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으나 기대한 만큼 코멘트가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2025년 데이터센터향 수주는 전년비 3배 이상

(1) **파워**: 장비와 서비스 모두에서 수요가 더 빨라지고 있어 가격 결정 역시 GEV에 우호적이다. 4분기 가스 장비 수주와 슬롯 예약(SRA)은 전분기 62GW에서 83GW로 증가했다. 기존 예상(약 60GW)을 크게 상회했으며 세부적으로 장비의 수주잔고가 29GW에서 43GW로 늘어났다. FY26년에 high teens GW 출하와 신규 계약 30GW를 고려할 때 약 100GW의 계약 규모에 도달할 전망이다. 최근 소형터빈의 점유율 상승 관련 우려와 관련해서는 1) GEV 대형터빈은 SRA에서 이미 수주잔고 대비 10~20% 높은 가격으로 체결되는 중이며 2) 소형터빈은 브릿지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 **전력**: 그리드와 데이터센터향 수주 강세가 지속되었다. 연간 수주 중 20억 달러 이상이 데이터센터에 직접 연관되어 체결되었는데 이는 FY24년의 3배 이상이다. (3) **풍력**: 육상풍력 safe harbor 영향으로 4분기 30억 달러 수주를 확보하며 연중 최대 분기를 달성했다. 다만 해상풍력은 12월 22일 정부의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 영향을 받았다. Vineyard Wind 프로젝트 지연과 관련된 비용으로 4분기 추가 충당금을 인식했다.

가스터빈은 3Q부터 생산량 큰 폭 확대

앞당겨진 Prolec 인수(11개월간 100% 소유)를 반영해 FY26년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조정했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된 가스 SRA가 주문으로 전환되고 전력 장비의 추가 가격 상승을 고려할 때 마진은 적어도 FY27년까지 추가상승 가능성이 높다. 병목인 가스터빈은 3QFY26부터 생산량이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FY25년에 신규 장비 200대와 신규 인력 1,000명을 추가했으며 FY26년에도 장비 200대, 인력 500명 이상 추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배당 2배 이상 확대와 자사주 매입 한 기존 60억 달러에서 100억으로 확대를 추가로 발표했다. 해상풍력을 제외한다면 우려요인이 전혀 없으며 안정적 성장이 가시적인 구간이다.

산업 Issue

2026년 1월 30일 | 글로벌 리서치

미국 태양광

테슬라 태양광모듈 사업 진출과 퍼스트솔라 급락 코멘트

테슬라/스페이스X, 각각 100GW 태양광/우주태양광 확보 계획 공개

테슬라가 태양광 모듈 사업에 진출할 계획을 공개하며 경쟁 심화를 우려한 퍼스트솔라의 주가가 약 10% 급락했다. 일론머스크는 처음으로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해 AI 시대의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태양광과 우주 태양광 발전(SBSP)을 제시했다. 향후 3년 내로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미국에 각각 연 100GW, 도합 200GW의 모듈 제조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선언이다. 테슬라는 최근 4Q25 실적발표에서도 원재료부터 태양광 패널까지 수직계열화된 공급망에 대한 계획을 공개했다. 현재 퍼스트솔라의 미국 내 연 모듈 캐파는 14GW 수준이다.

3년 내 실리콘계 패널 100GW는 현실성 떨어져

결론적으로 경쟁심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과도했다는 판단한다. 우선 '3년 내 100GW' 목표가 다소 비현실적이다. 테슬라의 태양광 패널은 실리콘계인데, 중국 공급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실리콘 모듈에서 중국 기업을 배제한 수직계열화를 완료해 현재 미국 모듈 시장(약 50GW)의 2배 규모를 한 기업에서 3년 내 달성하겠다는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만약 테슬라가 상업적 양산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테슬라와 퍼스트솔라 모듈은 경쟁 구도에 놓일 수 없다. 현 미국 모듈 시장 50GW 중 중국 기업은 약 24GW를 담당하고 있다. AD/CVD, PFE 조항 등으로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점차 축소된다면 오히려 두 기업 모두에게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퍼스트솔라는 이미 비중국 CdTe계 모듈로 실제 수직계열화를 완료했다.

정책 모멘텀이 풍부한 2026년

머스크가 다보스포럼에서 말했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지탱하기 위한 최종 에너지원은 태양광과 ESS'라는 주장에는 적극 공감한다. 이미 가장 최근 분기 데이터(SEIA, 3Q25)에서도 신규 전력 캐파의 85%를 태양광과 ESS가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에너지를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동안 '가격'이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가격뿐 아니라 속도(납기)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지만, 태양광은 이 기준에서도 월등하다. LCOE 기준 1년으로 가장 짧은 편이다. 2026년은 미국 태양광 산업 내 정책 모멘텀도 풍부하다. 1) 2차례 연기했던 인도/인니/라오스향 AD/CVD 예비 결과, 2) 폴리실리콘 Section 232 관세, 3) OBBBA 내 태양광 세제혜택을 정의하는데 필요한 PFE(금지외국기관)과 material assistance(실질적 지원)을 정의하는 재무부 가이던스 공개 등을 앞두고 있다. 퍼스트솔라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유지한다.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2026년 1월 27일 | Global Equity

사원전기(002028.CH)

글로벌 전력망 업그레이드 수혜 가능한 변압기/GIS 제조사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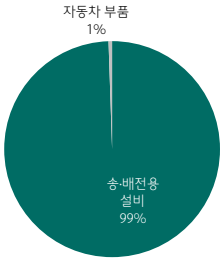
TP(컨센서스)	189.71 CNY
CP(1.26)	189.77 CNY

Key Data

국가	CHINA
상장거래소	Shenzhen
산업 분류	산업재
주요 영업	전기 장비
홈페이지	www.sieyuan.com
시가총액(십억HKD)	147.7
시가총액(조원)	30.5
52주최고/최저(HKD)	204.49/68.48
주요주주 지분율(%)	
HONG KONG SECURITIES CLEARING	21.25
Dong Zengping	16.89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21.9	135.7	133.7
상대	13.5	110.9	91.8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CNY)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	12,460	15,458	20,495	26,723
영업이익	1,755	2,378	3,558	4,812
순이익	1,559	2,049	3,017	4,074
EPS(CNY)	2.6	2.6	3.8	5.1
EPS(YoY, %)	0.0	0.0	46.2	34.5
ROE(%)	15.9	18.0	21.2	23.1
PER(배)	25.8	27.5	49.2	36.6
PBR(배)	3.9	4.6	9.8	7.9
배당률(%)	0.8	0.7	0.4	0.5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미국 수주 급증으로 해외 매출 2년 연속 고신장

사원전기는 전력망, 데이터센터 변전소 등에 사용되는 핵심 전력설비 제조사로 글로벌 전력망 확대의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다. 주요 제품군은 송전/변전/배전망에 필요한 개폐장치(GIS), 변압기 등 1차 설비부터 ESS 관련 부품 등으로 확장했으며, 미국/EU로 변압기 수출이 가능한 중국 내 소수의 상위 업체 중 하나다. 최근 미국의 非전력망(Non-grid) 고객사 수주 급증으로 사원전기의 해외 매출은 2024년/2025년 상반기 YoY +45%/+89%의 고성장세를 지속했고, 해외 매출 비중은 2024년 18%에서 2025년 상반기 32%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되었다. 변압기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 병목으로 현재 글로벌 주요 제조사들의 리드타임이 2~3년에 달하고 있는 반면, 사원전기의 리드타임은 1년 미만으로 지난해 완공한 대규모 신규 공장을 통해 빠른 납기가 가능한 상황이다. 사원전기는 미국에서 규제/보안 이슈로 진입이 어려운 전력망(Grid) 시장을 제외한 데이터센터/발전소/산업용 고객 중심의 非전력망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수요 대응 위해 적극적으로 증설 진행 중

사원전기는 적극적으로 변압기/GIS/ESS 생산능력을 확대 중이다. 2025년 하반기 장쑤성 초고압 변압기 및 ESS 생산공장 완공에 이어 올해 1월 중압 GIS 신규 공장의 최종 테스트를 완료하고 가동 개시를 앞두고 있다. 550kV급 초고압 변압기 공장의 연간 Capa는 400대로 지난해 9월 2기 완공을 통해 기존 Capa 대비 약 2배 확대되어 글로벌 주요 경쟁사 수준의 생산능력을 확보했다. 향후 미국/EU 시장 수출 물량 증가함에 따라 2개 지역 매출 비중은 전체 변압기 매출의 50% 수준까지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다. ESS 제품 생산공장은 2026~27년 ESS 배터리 PACK/PCS/SVG 2기 공장 완공을 통해 연 매출 100억위안 달성을 목표 중이다. 지난해 12월 체결한 CATL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 누적 50GWh 규모의 ESS 프로젝트 공동 수주를 목표하고 있어 ESS 수주 가속화 또한 기대되는 상황이다.

미국 AIDC 수주 및 ESS 잠재력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주가

사원전기의 2026년 실적은 1)2025년 하반기 진행된 대규모 미국 수주의 매출 인식과 2)변압기 생산능력 확대, 3)ESS 매출 증가 등에 기인해 전년도 높은 베이스에도 불구하고 고신장세가 기대된다. 또한, GPM 45% 수준으로 추정되는 미국 시장 이익 기여가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전사 마진 개선세도 지속 가능할 것이다. 사원전기의 주가는 현재 2026년 선행 PER 36.6배에서 거래 중으로 중국 업종 평균(30.6배) 대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부과 받고 있으나, 경쟁사 대비 압도적 이익 성장세가 주가 상승 모멘텀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AI 데이터센터향 수주를 포함한 글로벌 변압기 수출, ESS 사업 확대 잠재력이 큰 기업인 만큼 중국 및 글로벌 AI 산업 성장의 수혜주로서 중장기 투자 매력이 여전히 높다.

2026년 1월 30일 | Global Equity

알리바바(BABA.US)

AI만 잘해도 주가는 갈 수 있다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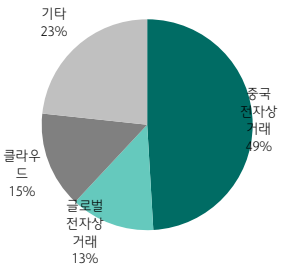
TP(컨센서스) 198.54 HKD
CP(1.29) 174.25 HKD

Key Data

국가	중국
상장거래소	New York
산업 분류	자유소비재
주요 영업	대규모 소매업
홈페이지	www.alibabagroup.com
시가총액(십억HKD)	416.0
시가총액(조원)	597.1
52주최고/최저(HKD)	192.67/94.97
주요주주 지분율(%)	
BlackRock	5.74
The Vanguard Group	4.31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18.3	47.2	83.1
상대	17.3	37.6	67.5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CNY)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868,687	941,168	1,037,641	1,144,950
영업이익	100,351	140,905	89,610	136,572
순이익	72,783	80,009	113,113	132,111
EPS(CNY)	55.1	55.1	45.9	56.5
EPS(YoY, %)	0.0	0.0	(16.6)	22.9
ROE(%)	8.1	13.0	9.9	10.7
PER(배)	10.2	14.8	27.9	19.5
PBR(배)	1.3	2.3	2.7	2.5
배당률(%)	1.4	0.8	0.7	0.7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4Q25 중국 리테일 사업 계속 부진하지만 클라우드 성장은 가속화될 전망

알라바바의 4Q25(3Q26FY) 매출은 중국 리테일 사업 성장률 하락이 클라우드/쿽커머스 부문 성장을 상쇄함에 따라 직전 분기(YoY +5%) 대비 둔화된 YoY 3%대 성장이 예상되며, 조정 순이익은 1)쿽커머스 손실, 2)AI 훈련/추론 비용, 3)Qwen App 프로모션 비용 발생 등에 기인해 3개 분기 연속 역성장이 예상된다. 4분기 클라우드 부문 매출 성장률은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연초에 집중적으로 업데이트한 AI 2C 라인업 강화를 통해 2Q/3Q25(YoY +26%/+35%) 대비 가속화가 전망된다. 알리바바의 AI 관련 사업 실적이 반영되고 있는 클라우드 매출은 2023~24년 한 자리 수 성장률에서 2025년 두 자리 수로 매 분기 가속화 되었으며, 이는 2025년 공격적으로 확대한 AI Capex 투자의 결과물이 실적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26년에도 클라우드 매출 성장은 AI 2C 서비스를 통한 외부 수요 확대로 전년 대비 가속화가 예상되며, 강한 클라우드 매출을 기반으로 향후 3년간의 대규모 AI Capex 투자 계획(3,800억위안)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4Q25 중국 전자상거래(Customer management) 매출은 1)중국 소비 경기 부진, 2)2024년 9월부터 시행된 타오바오 수수료 인상 효과 정상화 등에 기인해 3Q YoY +10% 성장에서 한 자리 수로 둔화가 예상된다.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온라인 상품 소매판매 성장률은 경기 둔화로 여파로 2025년 상반기 YoY +9%에서 하반기 -2%로 역성장 전환되었다.

반도체 자회사 T-HEAD 상장, 아직은 확인돼야 할 것들이 많다

최근 바이두의 반도체 자회사 상장 공식화에 이어 알리바바도 반도체 자회사인 T-HEAD의 IPO를 준비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향후 알리바바가 IPO를 공식화할 경우 주가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예상되나, 실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기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2026년 반도체 외부 판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바이두와 달리 알리바바의 반도체 사업은 그룹 내부 수요 목적으로 설립되어 아직까지 외부 고객 관련 트랙 레코드가 매우 제한적이며, 현재까지 알려진 외부 수주 사례는 2025년 9월 차이나유니콤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약 2.3만개 AI 칩 중 72% 공급)가 유일하다. 또한, 알리바바가 2023년 클라우드 사업 스핀오프와 2024년 차이냐오 물류 사업 IPO 계획을 발표한 이후 모두 철회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가 상승 재료로서 작용하기 위해서는 IPO 공식화 후에도 1)독립 법인 지배구조 정비 등 구조조정 진행, 2)T-Head 재무 정보 공시 확대, 3)외부 설계 수주 확대 등과 같은 추가적인 액션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알리바바의 주가는 연초 이후 중국 정부의 반도체 국산화 의지 재확인, 반도체 스타트업들의 연이은 상장에 따른 밸류 재평가 기대감이 반영되며 상승세로 전환된 상태다. 중국 리테일 사업 부진에 대한 우려는 지난 4분기 주가에 한차례 선반영된 만큼 2월에 발표될 4Q25(CY) 실적에서 클라우드 실적이 시장 기대에 충족한다면 주가 상승 모멘텀은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HANA Global Weekly

Tel: 02-3771-사내번호 E-mail: @hanafn.com

	이름	직책	담당분야	사내번호	E-mail
센터장					
	황승택	**센터장**	**리서치센터 총괄**	**7519**	**sthwang**
글로벌투자분석실					
글로벌 매크로·투자전략팀	**이재만**	**실장**	**국내/선진국투자전략**	**7547**	**duke7594**
	김경환	팀장	중국/신흥국전략	7616	khstyle11
	이경수	수석연구위원	Quant	7518	gang
	김두언	수석연구위원	국내외 주식시황	7509	kimdooun
	전규연	연구위원	경제/원자재	8196	kychun
	임승미	연구위원	포트폴리오	7786	seungmi_lim
	김근아	선임연구원	신흥국전략	7698	geunak
	강윤형	선임연구원	포트폴리오	8024	kangyh
	이철현	선임연구원	Quant RA	7723	lch2678
	김성은	선임연구원	중국/신흥국전략 RA	7520	seongeunk
	박준우	선임연구원	시장대리인/포트폴리오 RA	8116	junwoo
	박성제	선임연구원	국내/선진국투자전략 RA	8576	parksungjae
	안범수	연구원	국내외 주식 시황 RA	3224	beomsooahn
해외주식분석실					
	박승진	**실장**	**글로벌 ETF**	**7761**	**sj81.park**
	김재임	수석연구위원	선진국기업분석	7793	jamie
	백승혜	수석연구위원	중국기업분석	7521	sh_baek
	강재구	연구위원	선진국기업분석	3386	jaekoo.kang
	송예지	선임연구원	중국기업분석	8143	yeajisong
	김시현	선임연구원	미국/선진국기업분석	7513	sihyun_kim
	안기량	연구원	중국기업분석 RA	7736	giryangan
	송종원	연구원	선진국기업분석 RA	7261	1223sjw
	이재은	연구원	선진국기업분석 RA	3743	jaeeunle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